I-SEOUL-U

2020 주요 업무계획

2020. 2.



목 차

Ι.	일 반 현 황	1
${\mathbb I}$.	시 정 비 전	4
Ⅲ.	2020 시정운영방향	5
IV.	코로나19 종합상황보고	6

V. 주요업무 추진계획

11

I . 일 반 현 황

① 인구 및 면적('19.12.31. 기준)

인 구 - 4,327천 세대 10,011천명 (내국인 9,729천명, 등록외국인 282천명)

면 적 - 605.24km² (전국의 0.6%)

행정구역 - 25개 자치구, 425개동(12,752통 / 95,569반)



강・인구: 11개구 5,195천명(51.9%)

남 · 면적 : 307.40km²(50.8%)

② 조직 및 인력 ('20. 2월 현재)

- ▶ 서울시 3부시장, 6실 5본부 8국 14관·단, 154과·담당관, 3사업본부,32직속기관(24개 소방서 포함), 46사업소, 3합의제
 - ▷ 정 원 : 18,561명(본청 4,581, 시의회 333, 직속기관 8,052, 사업소 5,357, 합의제 238)
- 자치구 25개구 147국 841과, 25보건소
 - ▷ 정 원 : 34,175명(구청 25,424명, 주민센터 8,751명)

③ 2020 재정운용('20. 1.1. 기준)

예산규모

----- < 총 계 예 산 > -----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19년(본예산)	증 감(%)
합계	39조 5,359	35조 7,416	3조 7,943(10.6%)
일반회계	26조 8,934	24조 1,683	2조 7,251(11.3%)
특별회계	12조 6,425	11조 5,733	1조 692(9.2%)

회계간 전출입 : 4조 2,55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19년(본예산)	증 감(%)		
합계	35조 2,808	31조 8,811	3조 3,997(10.7%)		
일반회계	23조 2,186	20조 9,186	2조 3,000(11.0%)		
특별회계	12조 622	10조 9,625	1조 997(10.0%)		

법정의무경비: 9조 7,356억원

- 자치구 5조 2,411억원, 시 교육청 3조 3,246억원, 채무상환 7,603억원, 기금전출금 등 4,096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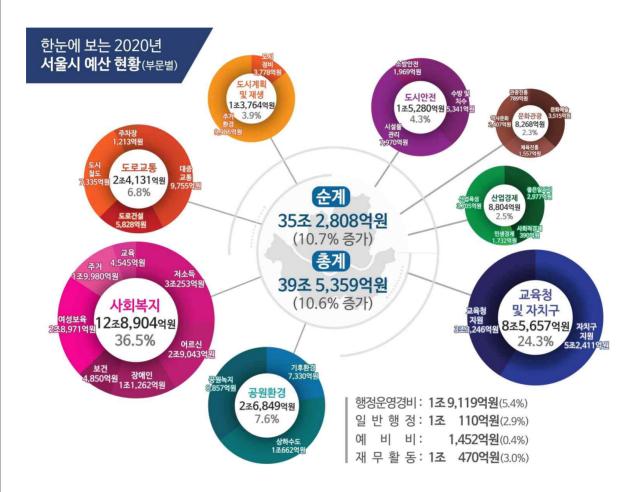


	(단위 : 억원)				
< 실집행 규모 >(년 기 · 기년)					
구 분	2020년	2019년(본예산)	증 감(%)		
합 계	25조 5,452	23조 1,376	2조 4,076(10.4%)		
일반회계	14조 3,143	12조 8,425	1조 4,718(11.5%)		
특별회계	11조 2,309	10조 2,951	9,358(9.1%)		

기금규모 - 16개 기금 2조 4,486억원 ('19년 본예산 대비 1조 4,184억원, 36.7% 감소)

자 치 구) - 17조 5,027억원 ('19년 본예산 대비 11.1% 증가, 1구 평균 7,001억원)

부문별 비중(순계규모)



지방채 현황 ('19년 12월 현재) - 서울시 5조 5,713억원

(단위 : 억원)

계	도시철도 건설 등	주택사업	도시공원 보상	SOC 사업 등
55,713	35,515	10,169	5,800	4,229
	(63.7%)	(18.3%)	(10.4%)	(7.6%)

Ⅱ.시정비전

비전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목표



기조



Ⅲ. 2020 시정운영방향

◆ 현장·혁신·형평의 시정 기조로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생의 활력을 제고하여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본격 구현

■ 미래 먹거리 창출과 공정한 서울 조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구현

- 혁신창업 지원 강화, 산업거점 본격 육성, 스마트도시 선도로 경제 혁신·활성화
- 제로페이 활성화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노동존중 강화로 경제민주화 가치 실현
-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이자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도시 조성 지향

■ 시민이 믿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조성

- 상시적·선제적 시민안전 및 인프라 관리,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 사람 존중 교통체계 구축·혁신 및 교통인프라 강화로 시민편의 제고
- 대기질 개선, 온실기스 감축, 자원순환, 숲과 정원 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포용과 형평으로 사각지대 없는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실현

- 공공돌봄 및 복지전달 체계. 지역돌봄 인프라 고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생애주기별 형평성 있는 건강권 강화 및 틈새 없는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 사람 중심 도시개발과 주거문제 해결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조성

- ─ 주요 공간 혁신·대표명소 재생과 함께 지역별 특화발전 및 균형성장의 기반 강화
- ─ 신혼부부·청년 등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주거지원과 공동주택 관리투명성 강화

■ 평등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 강화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 서울' 실현

- 여성안전과 성평등 가치 구현, 사회혁신·도시전환 선도, 시정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과 남북교류협력 강화로 국가차원 지역동반성장 선도
- 시민 소통 강화, 청렴도 항상 및 공정세정 등으로 정책의 체감도 및 신뢰도 제고

Ⅳ. 코로나19 종합상황 보고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확산 방지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종합 대응상황을 보고 드림

※ 공식 명칭변경(2.1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코로나19 현황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1.20) → 경계(1.27) →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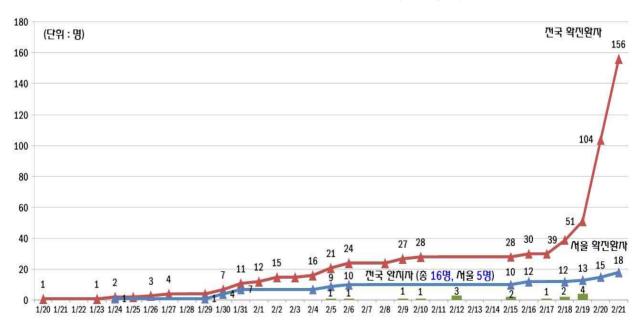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 **156명** ('20.2.21. 09시 현재)

구 분 확진환자			의사환자				
丁 世	소계	격리중	완치	사망	계	검사중	격리해제
 전 국	156명	139명	16명	1명	13,098명	1,860명	11,238명
서울시	18명	13명	5명	_	3,820명	445명	3,375명

※ 국외 발생현황 : 확진환자 76.081명, 사망 2.243명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완치자 추이 】



□ 대응방향

- (**감염 확산 방지**) 선제적 · 전방위적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
 - 정부, 자치구 및 보건소, 민간 전문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강화
 - 대시민 예방활동 강화 및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
- (**시민생활 안정**)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일상생활 안정 유지
 - 근거 없는 **과도한 불안 및 공포 방지**를 위한 실시간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민생경제 지원 대책 마련

□ 추진경과

○ '20. 1. 4. : 「서울특별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구성

○ '20. 1. 20. :「市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대책반」구성

○ '20. 1. 26. ~ : 매일 「종합대책회의」 개최 및 전시적 신속 대응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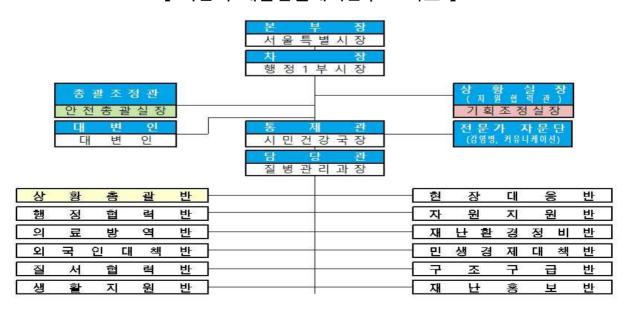
- 선제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한 全 실·본부·국 대응체제로 전환

○ '20. 1. 28.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 '20. 1. 31.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확대·개편

- 상황실장, 총괄조정관, 전문가 자문단, 상황총괄반, 실무반 확대를 통한 실행력 강화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



◯ 분야별 조치현황

1 감염 확산 방지

-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감염병 바이러스 국내 유입 사전·신속 차단
 - 중국 우한에서 서울로 입국한 **외국인 명단 조속한 확보 및 전수조사** 실시
 - 중국인 밀집 지역 및 다빈도 이용시설 **감염증 예방 행동요령 전파** 및 **방역관리**
 -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거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
 - ▶ 대학-지자체-보건소 간 바상연락체계 구축. 유학생 격리공간 발굴·연계 등
 - ▶ 교육부. 전국 모든 **대학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1.31. 市 건의 / 2.5. 시행)
-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전사적 총력 대응
 - 선별진료소 56개소(보건소 26. 응급의료기관 28. 시립병원 2) 및 **이동형 진료소 5개구** 운영
 - 신속 진단 및 대응을 위한 검사기능 강화(2단계 24시간 → 1단계 6시간 소요)
 -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시간 코로나 정보 제공 및 120 상담 대응 강화 ※ 대시민 서울시 일일보고 「 ► YouTube 생방송」추진(매일 15:00, 1.30~)
 -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內 전파 가능성 총력 저지
 - ▶ **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수 감시**,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등 지역사회 감시체계 강화
 - ▶ 시·구립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및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 제한
 - ▶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및 따름이 · 공유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방역강화**
 - ▶ 중국인 유학생, 건설현장 등 일용직 노동자, 불법체류자 등 **집중방역 대상 다각화**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



- (**방역물품**)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수급관리 철저**
 - 일괄 구매 및 부서별 개별 구매(Two Track 전략)를 통한 신속한 물량 확보
 - 의료진, 다중이용 시설 및 장소(대중교통 등), 저소득·취약계층 우선 지원
 - 방역물품 매점매석 등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 근절 단속 강화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긴급수급조정 조치」(2.1 市 건의 / 2.12. 시행)
- (**대응인력**) 비상대응체계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인력 확보방안 검토
 - 동주민센터 소속 돌봄SOS센터 간호직 순환 근무 및 기간제근로자 긴급채용
 -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민간 유휴 의료인력(간호사 등) 신속 투입 방안 추진
- (**자가격리 대응**) 자가격리 급증에 대비한 시설 및 의료인력 선제적 준비
 - 서울시가 이용 가능한 모든 시설 및 민간시설까지 확대한 적극 · 선제적 확보
 - **인재개발원 격리시설 운영**(1.8) 및 1.10. **8명 첫 입소**(중국 관광객 7. 내국인 1)
- (대정부 건의)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서울시 감염병 대응 선도
 - 코로나] 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개선방안 지속 건의 및 중앙정부 채택·시행
 - ▲ 호흡기 증상 확대, ▲ 자가격리 대상자 확대, ▲우한입국자 정보공유,
 - ▲ 중국 입국자 전부 능동감시 확대, ▲ 대학개강 연기, ▲ 긴급수급조정조치,
 - ▲ 1339콜센터 인력확대 건의 등 市 제안사항 정부 반영

② 시민생활 안정

- (**불안감 해소**) 바이러스 불안·공포 확산을 막고 시민의 불안해소 적극 추진
 - 서울시 방역소독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시설 방역관리 철저
 - 확진자 방문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및 과학적 바이러스 사멸 확인(보건환경연구원 환경검체) 후 '클린존' 안내문 부착



- '클린존' 온라인 맵 제공(방역현황 안내 등)으로 시민 안심 분위기 조성

- (경제활력 제고) 감염증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및 소비·내수 진작
 - 업종 및 분야별 **민생경제 대책 TF 조직 및 대응 체계** 구성·운영(2.6.)
 - 침체된 서울 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2.14.)
 - ▶ 관광종사자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및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 ▶ 관광업계 특별융자 설명회 개최(2.20.)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최소화 및 기업 피해 극복 대책 발표(2.18.)

 감염불안 방지를 위한
 ↑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
 시민일상 회복을 위한

 ① 사업장 방역 추진
 ◆
 ② 기업 피해 지원
 ◆
 ③ 소비 및 내수 진작

①「사업장 방역」분야

- ▶ 35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대적 방역 실시 및 '클린시장' 운영
- ▶ 코로나19 방역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총 2,700명** 확대

②「기업 피해 지원」분야

-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5,000억원)**
- ▶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등 세제지원
- ▶ 피해업종 1,000개 기업 대상 피해실태 조사 및 추가대책 마련

③ 「소비 및 내수 진작」 분야

- ▶ 시·구 전체 재정의 62.5%인 **21조 9,043억원** 상반기 **신속집행**
- ▶ **서울사랑상품권 할인구매한도 상향**(1인당 50→100만원) 및 캐시백(2~5%) 지원
- ▶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확대**(참여 시장 29→ 35개소, 주5일 →주6일)

□ 향후계획

- 24시간 비상대응과 철저한 방역체계로 감염병 차단 및 사태 종식 노력 지속
- 감염증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얼어붙은 경제·소비심리 개선 대책(피해극복 포함) 추진
- ◆ 시민들의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상권침체, 불필요한 휴·폐업 등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차단 노력

♥.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함께 성장하는 미래서울
- 2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서울
- 3.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
- 4.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서울
- 5.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서울



1.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 1 미래먹거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 ② 인프라 구축·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
- ③ 공정한 서울과 경제민주화 구현으로 상생·공정 경제 실현
- 4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 조성
- 5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
- 6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도시 조성

미래먹거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혁신창업 3대 스케일업 전략

성장 가속화 - 공간ㆍ인재ㆍ자금 등 핵심요소 적기 제공

- (공간) 기술창업공간 6개소, 3만m² 확충, 300개사 입주 지원
 - AI·BIO 등 6개 분야 기업 입주공간 확충 및 창업고도화센터 개관 ('20.10)
- (인재) 산업·거점별 미래 혁신인재 3천5백명 양성
 - AI(1,170명), IoT(1,220명), 바이오(500명), 블록체인·핀테크(460명) 등
- (자금) 혁신성장펀드 4,800억원 조성, 500개 창업기업 투자
 - 창업단계 200개(Seed), 초기창업 250개(Series A), 성장단계 60개(Series B)
- (제품화)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위한 R&D 등 종합지원 체계 마련
 - 제품 R&D(30개사, 최대 1억원), 크라우드펀딩(30개사), 판로 지원(30개사)

Going Global - 서울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본격진출 지원

- (글로벌파트너) PNP 등 100개 AC·VC와 연계, 창업기업 500개사 해외 진출
 - PNP 등 해외 네트워크 활용 및 Tech-Rise 개최 등 대기업·투자자 매치메이킹 확대
-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 20개사와 창업기업 100개사 스케일업 지원
 - 대기업 생산망, 유통체인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지원
- (환경개선) 글로벌 창업가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 및 로드쇼 추진
 - 비자발급 제도 개선, 국내외 창업가 주거 지원(200명) 및 인베스트서울센터 개관('20.2)

클러스터 강화 - 거점별 기술·정보 연계 등 창업생태계 강화

- (거점강화) 지역별 특성·강점 기반으로 신산업 주요거점별 생태계 강화
 - (AI) 특화교육 운영(품질시험소 별관) / (BIO)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 (핀테크) 금융대학원 개관('20.9) / (패션) 전문랩('20.5), 디지털팩토리('20.5) 운영
- (거버넌스) 생태계 플랫폼·멤버십을 통한 창업 거버넌스 구축
 - 스타트업·대기업, 대학, 투자기관 간 정보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20.5)
- (캠퍼스타운) 서울 34개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 참여로 청년창업 활성화
 - 상시육성 청년창업팀 전년 대비 3배 확대(156팀 → 500팀)

산업클러스터 본격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 AI 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

- 기업·연구소와 협력하여 AI 인재양성 획기적 확대('20년 1,000명)
 - 기술연구기관 공모·유치로 취업연계, 직무전환 등 전문교육과정 운영 ('20.5)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양재 AI 기업간 프로젝트 기반 협력 교육과정 신설('20.6)
- 공공·민간 자원의 최대 활용을 통한 공간확충 지속 추진('20년 110개)
 - 교총회관 등 기존 공간 외에 민간건물 추가 임차로 기업 입주공간 적기 확충
 - 품질시험소 별관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전문동 조성 ('20.4)
- AI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앵커시설 조성 본격 추진
 - '양재 R&D 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곡도매시장 이전 등 사전절차 이행(~'22)
 -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내 'AI 지원센터' 건립 추진 (~'22.11)



〈교육전문동('20.4)〉



〈AI 지원센터('22)〉



〈양재R&D캠퍼스('25)〉

흥릉 바이오·의료 R&D클러스터 육성

- 홍릉 일대 민간 건물임차, 바이오 기업 맞춤형 공간 적기 공급(50실)
 - ─ 경희대 구 이과대(20실), 고려대 앞 거산프라자(30실) 등 입주공간 추가 제공('20.7)
- 기술융합, 전후방 산업 확대에 대응 2단계 인프라 확충 가속화
 - IT 융합형 헬스케어분야 특화 창업공간 「BT·IT융합센터」 완공('20.11)
 - 「글로벌협력동」('21.12),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24년) 조성 본격화



-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성장지원 기반 마련
 - 홍릉 일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한 바이오의료 산업 생태계 고도화('20.6)
 - 산·학·연·병 협력사업 강화 및 '20년 서울바이오펀드 조성·운영('20년 400억원)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 서울핀테크랩을 아시아 핀테크 중심지로 집중 육성('20.10월)

제1핀테크랩 개관	제2핀테크랩 개관	서울핀테크랩 통합개관	핀테크랩 확대조성 (예정)
(마포)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70개→100개)
'18.4	['] 19.7.	'19. 10.	'20.10.

-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의 발전을 위한 서울핀테크랩 확대 조성(100개社, 1,000명 확대)
- 해외 우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핀테크 기업 스케일업
- 글로벌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의도 금융대학원 개관('20.9월)
 - '20~'23년까지 서울시·금융위원회 공동추진('20년도 40억원)※4년간 총190억원
 - 디지털금융 전문가 양성(석사학위 80명, 비학위 160명), 서울국제금융센터 17층(예정)
-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유치 및 공간조성('20.7월)
 - 지방이전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및 외국계 금융기관 등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 금융종사자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IT융합을 통한 동대문 패션산업 생태계 혁신

- 패션산업 성장 동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판로 지원 확대
 - 혁신 생산기술 공유 플랫폼 '디지털팩토리',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패션아카데미', 패션 관련 아이디어 창업 지원공간 '패션창업허브' 조성 등 기반 구축 ('20.9.)
 - IT 활용 패션산업 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판로 개척 지원
 - ▶ V-커머스 스튜디오('20.3.), M_V Style Lab(인공지능 활용한 소비자 스타일 맞춤형 제품 제안)('20.5.) 등
 - 도시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ICT 기술접목 통해 기획-제조-유통이 연계되는 스마트 앵커 조성
 - ▶ 총 6개소 추진('20.2월 현재), 성동·중랑 스마트앵커 착공 예정('20.7/9.)



중랑구(봉제)



성동구(수제화)



중구(인쇄)



마포구(디자인출판)

- 일감 확대와 산업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솔루션앵커(급천·창신) 조성

전방위 혁신기반 조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핵심 전문인력 양성

- 서울 미래 혁신인재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20.상반기)
 - (분 야) AI, BIO, 핀테크 등 4차 산업 기술기반 중심 서울시 미래 핵심 산업
 - (수요/공급분석) 산업통계분류에 따른 직무 및 핵심역량에 기반한 분석추진
-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운영('20.9월)
 - IT/SW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초교육 및 기업맞춤형 과정 운영



금천구 가산로 70 (임차) / 연면적 1,541㎡, B2~4F



영등포 문래동 (공공기여)/연면적 1,499㎡), B1~3F

R&D 집중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R&D 지원 대폭 확대를 통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적기 개발 지원
 - 클라우드펀딩형 등 기술상용화 및 창업기업. 제품화 지원 확대('19년 50억→'20년 92억)
 - 양재 AI, 홍릉 바이오 등 클러스터별 신성장산업 R&D 확대('19년 80억→'20년 139억)
- 테스트베드 양적성장과 질적제고를 통한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 4차산업 중소·스타트업 제품 실증기회 확대('19년 27개 → '20년 40개)
 - 수요(서울시) 중심 실증체계 도입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상시컨설팅 지원
- 국내·외 경쟁형 R&D 추진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가속화
 - 국내·외 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서울글로벌챌린지**」
 - ▶ 제2차(2020~2021)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 새로운 도시문제 해결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 캠퍼스타운 대학 보유기술 매칭을 통한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강화
 - 창업기업간 상호 문제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오픈 ('20.4.)
 - 기업의 기술 장벽 해소를 위해 대학기술 매칭사업 시행 ('20.4.)

 서울소재 중소기업
 기술매청신청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경쟁공모
 캠퍼스타운 대학 전문가

 - 기술개발 어려움 해소
 - 기업 기술애로 접수 및 최적기술에로 최적기술응모
 - 보유기술 정보제공 최적기술이로 전설팅 및 R&D실행

거점별·산업별 기업지원 공간 확충 및 신규 조성

서울서남권 일대 메이커스페이스 단계별 조성

조성개요



- (1단계) 시제품 지원을 위한 개봉 메이커스 G-플랫폼(가칭) 구축('20년 하반기)
- (2단계) 고척 메이커스 G-플랫폼(가칭) 조성으로 아이디어→제품화 원스톱 지원
- (3단계) 문래 메이커스 G플랫폼(가칭)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
 - ※ 1단계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운영 결과 및 지역산업 대표 등의 의견 수렴하여 2단계 확장 방향 검토
- 스타트업 Scale-up을 위한 창업고도화센터 개관('20.10월)
 - 시 창업지원시설 유망 졸업기관의 Series B단계 이상으로 투자 촉진
 - 민간 AC·VC 책임 보육제 전면 시행('20.10) 및 대기업 상시 매칭 센터 운영
- 블록체인 성장거점 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개시('20, 2월)
 - 서울창업허브, 청년혁신타운과 연계한 블록체인 거점 조성(2.014m²)
 - 전문 AC에 의한 운영 및 대학·기업과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20년 300명)



〈창업고도화센터〉



〈블록체인지원센터〉

- 증유·협업 기반의 서울먹거리창업센터 확대 이전(가락몰→강동. '20.7월)
 - 센터 확대 이전 조성을 통한 입주기업 확대(50개→70개)
 - 농식품 개발랩 신규조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집중 지원

2 인프라 구축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

▋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 市 전역 공공 정보통신망 구축 및 공공 WiFi 시민 공공생활권 확대
 - 市·區 소속 기관 29개 개별망 통합·연계(2,883km)를 통한 공공 정보통신망 구축
 - 시민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WiFi 확대 및 공공WiFi 통합관리센터 구축
-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
 - 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저장소 구축, 민·관 융합 데이터 개발
 - 열린데이터광장 리뉴얼 오픈('20.1) 및 빅데이터캠퍼스 확대개방(7개소)
 - 도시현상 상시 측정을 위한 市 전역 도시데이터 통합센서 설치확대(1,100개)
-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구현
 - CCTV 종합 컨트롤타워 수행을 위한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20.3 개관)
 - AI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 보안위협에 선제 대응하는 사이버 안전도시 실현

■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확산

- 시민과 직원이 편리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본격 추진
 - 시 대표 인공지능 상담 챗봇 '서울톡' 운영 및 서비스 확대('20.2. 오픈)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지능화, 지능형 회의록 지원서비스 운영 확대
- 3D 기반 Virtual Seoul 시스템 활용 확대
 - 서울시 전역 지형·건물·시설물 등 주요 정보를 3D지도로 구축(Digital Twin)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각적 모의실험, 공간분석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지원
-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술개발 및 기업성장 지원
 -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TEST場 제공 및 혁신기술 적용 지원(스마트시티센터)
 - CES 참여 등 혁신기업의 글로벌세일즈 지원, 기업 솔루션 상시홍보(전시관 운영)

■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 가치 구현

-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
 -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 강화 및 찾아가는 시니어 스마트 봉사단 운영(100명)
 - 장애인 정보통신 기기 보급(400대), 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3,000대)
 - 휴머노이드형 스마트기기 활용지원 교육로봇 개발·보급(200대)
- 스마트서울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 시민 눈높이 정책을 위한 디지털 청년자문단(100명), WiFi 모니터링단(100명) 등 운영
 - 데이터 수집단 운영(200명),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시민 참여 확대(해커톤, 공모전)

공정한 서울과 경제민주화 구현으로 상생공정 경제 실현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 1區 1종합지원플랫폼 체계의 조기 구축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플랫폼 25개구 확산 ('19년 시범5개 → '20년 전자치구)
 - ▶ 위기 소상공인 발굴 및 자금지원, 세금·고용·경영 컨설팅 시행
 - 종로지역 종합지원 플랫폼 최우선 구축 ('20.1월)
 - ▶ 집회·시위에 따른 교통통제 등 상권이 침체된 삼청동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 ▶ 상권활성화 협의체 구성('20.2월): 종로구, 신용보증재단, 상인대표 참여
 -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문제 해결과정의 시너지 창출
 - ▶ 지역주민, 대학교 및 투출기관 등 협업강화로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제로페이 활성화 및 서울사랑상품권 조기정착

- 제로페이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
 - 시·자치구 및 민간부분 대상 가맹역량 집중
 - 신기술 결제방식 도입으로 결제시간·절차 단축
 - ▶ 태깅(tagging), CPM방식, 교통카드 결제기능 도입 등
 - ▶ 위챗페이 등 글로벌결제사 제로페이 참여 추진
 - 높은 소비자 혜택 제공 및 전략마케팅으로 사용자 확산

서울사랑상품권 조기정착 추진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판매 (21개 자치구 1,610억원)
- 서울전역 통용 상품권 발행 등 사업다양화 추진 ('20.하반기~)





■ 공정한 상가임대차 제도 및 소비자보호 확대

-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조성
 -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도입으로 임대차 분쟁 합리적 해결
 - ▶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및 권리금 DB구축, 분쟁조정 자료로 활용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중점 추진
 -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제도개정 건의
 - ▶ 임대료 증액(연5%) 결정권 시·도위임. 환산보증금 법적보호 한도(연9억) 삭제
 - ▶ 임대료 신고의무화 건의. 상가집합건물 관리비 실태조사 추진 등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불공정피해 구제강화

-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 자동차 대체부품 이용 활성화로 중소기업 육성 및 소비자 권익제고
 - ▶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 비교시험 및 공표(`20.2월~)→ 자동차 수리비 절감(50%수준)
 - 의류봉제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가공비 상생협약체결('20.4월)

● 민생침해 근절 소비자 권익보호

- 원산지 세탁 등 불법 공산품 유통방지로 소비자 기본권 보장
 - ▶ 동대문 등 의류도매시장에 '도용방지 라벨' 제작 보급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강화
 - ▶ ('18) 57건 3.7억원 → ('19) 98건 14.3억원 : 증 41건, 10.6억원(286.5% ↑)
- 설, 추석 등 명절 전·후 대출집중 시기별 불법행위단속 강화
 - ▶ 법정이자율(연24%). 중개수수료(4%) 초과 행위적발. 민사단 수사의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참여확대
 - 공동주택 단지 내 경제공동체 발굴 육성 (20개소)

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1단계)

· 주체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자조모임(협의체) 운영

공동소비·공동생산의 경제공동체 형성(2단계)

위한 사업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3단계)

⇒ ·시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을 ⇒ ·지역브랜드 개발, 지역 특화 사업 등 복합 서비스 개발

- ▶ 주민수요 기반으로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 모델 발굴, 기업화 본격 지원
- 주민기술학교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 (5개소)

● 지역과 연계한 협력성장 기반조성

-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 공동자산 마련시 市 자금융자로 지역자산화 (50억원 규모)
- 사회적경제 협력성장 지원 '복합공간' 조성 (구로구 개봉동 지상 6층, 2,221㎡)
-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성장 투융자 지원 강화 (융자 200억원, 투자 10억원)

판로확대를 통한 가치소비 확산 및 인식제고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공공시장 지원 : 목표 ('19)1,400억→('20)1,900억
- 김포공항, 대형마트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전용 판매장 구축
- 인서울 마켓(9~10월), GSEF포럼(10월), 세계협동조합대회(12월)개최, 함께 누리몰 운영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 조성

시민 모두가 일상 속 생활관광 향유 기반 마련

-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으로 보편적 관광향유권 강화
 -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휴가비 지원(3.800명, 4월~)
 -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여행프로그램 운영(3,000명, 4월~)
-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
 - 유니버설 관광편의시설 신규 300개소 인증(유효기간 3년). 모니터링 및 홍보 지원
 -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운영확대(6월, '19년 4대→ '20년 7대) 등을 통한 여행환경 개선







〈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운영 〉

〈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여행활동 지원〉

● 생활관광 수요 증대 대응을 위한 시민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

- 챗봇(chatbot), 증강현실(AR) 길안내 등 사용자 위치기반 관광지 안내서비스 강화(6월~)
- '서울시민관광 아카데미' 운영 등 통해 다양한 생활관광 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7월~)
- '서울-지방상생패스' 출시('20년 하반기 예정) : 주요관광지 무료입장, 할인기능 제공

서울 관광 생태계 혁신

● 강소 관광기업 육성을 통한 서울 관광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 관광사업체 맞춤형 R&D 지원(관광콘텐츠 개발 등)
- 국내·외 관광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최대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SITIF)' 개최(5.21~24)
- 관광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자치구와 함께하는 지역주도형 관광생태계 조성

- 자치구 공모를 통한 한류관광 등 트렌드 반영 핵심사업 집중 지원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자치구별 주거지역 관광명소화로 인한 주민피해 실태 파악 및 현장인력 배치 등 대책 마련

● 서울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관광분야 상생협력 모델 구축

- 수도권 5개 시·도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및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 개발·운영 지원

세계 최고 MICE 도시로의 도약

- MICE 1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 MICE 중장기 발전계획('20~'24)」 수립으로 MICE 산업 성장기반 마련(5월)
- 글로벌 MICE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시스템 강화
 - '세계임상화학회 학술대회(5.24~28, 5천명)' 등 중대형 MICE 성공적 개최 지원
 - 세계유수 MICE 전시회(독일 IMEX, 스페인 IBTM 등)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추진
- 민간업계, 타시도 등과의 협업으로 마이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
 - '서울 MICE 종합지원센터' 컨설팅 강화 : (기존) 법률/인사노무/회계 → (확대) IT/홍보마케팅 추가
 -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확대 : (기존) 강원·광주 → (확대) 경남·제주 추가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지속 확충

- 서울만의 새로운 볼거리, 「M.V.P(Must Visit Place) Seoul 25, 코스 확산
 - 서울 관광명소와 테마별 볼거리·숙박·음식·즐길거리가 포함된 '서울관광 M.V.P 테마 코스' 웹페이지 구축(5월~) ※ 총25개 코스: 대표코스(5), 테마코스(10), 성향코스(10)
 - 글로벌 여행 플랫폼(트립어드바이저)과 연계 코스별 콘텐츠 제작·확산(6월~)
- 서울 순례길을 아시아 대표 관광코스로 육성하여 특화관광 활성화
 - 이용대상 분석을 통해 순례길 활성화 전략 마련 및 만관 협력 인지도 제고 프로모션 추진
-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서울의 대표 관광 명물로 재탄생
 - K-Pop 등 서울만의 특색을 반영한 테마버스·시즌별 특별 이벤트 운영, 매표소 포토존 조성 등

국내·외 대표도시로서 서울관광 위상 제고

- 서울관광의 핵심 허브.「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聽')」조성 추진
 -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서울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서울관광의 핵심 허브기능 수행
 - 단기적으로 청계천 인접건물(삼일빌딩)을 임차하여 개관('20.12월) 운영, 장기적으로 관광진흥기금조례 제정('20.7월), 기금 적립('21~'24) 및 건물 매입하여 조성('25.9월 개관)
- 2020년 UIA 아태총회 개최로 서울의 영향력 확대
 - UIA(국제협회연합) 아시아-태평양 총회 서울 개최(9월), 국제회의, 인센티브 등 잠재수요 발굴 및 홍보마케팅

SHARE SEOU

-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전략적 통합마케팅 추진
 - 글로벌 빅이벤트(도쿄올림픽 등) 연계 및 주요시장별 마케팅 추진, 한류스타 활용 글로벌마케팅 확대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

청년 체감 현장밀착형 고용지원 대책 강화

- 청년 일자리 1.1만개 신규 창출로 청년 실업률 1%p 감소(8.8% → 7.7%)
 - 市 행정 역량 총 결집으로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11,629개)
 - ▶ 기업-청년구직자 매칭(4,200개), 전문인력 양성(3,217개), 창업지원(2,269개), 기타(1,943개)
-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
 - 일자리카페 확대(91→100개소) 및 취업날개서비스 확대(이용자 34천명→38천명)
 - 강소기업 정보제공 기능 및 일자리카페 특화 프로그램 강화
 - ▶ 강소기업 : ('19년) 매출액, 복지제도, 채용정보 → ('20년) 신용정보, 근무환경 등
 - ▶ 일자리카페 : 실전입사지원 대비 1일 집중 멘토링「취업원데이클래스」(월 1회)
- 청년실업자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위한 '청년 고용 사후관리제' 실시
 - 민간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모니터링(6개월 간)
 - 실업상태로 전환된 참여자의 실업사유 분석을 통한 멘토링 제공



│ 공공일자리 및 지역기반형 일자리 사업 발굴 확대·추진

- 민간취업연계 뉴딜일자리 발굴 확대(250개 사업 4,600명)
 - 민간기업 맞춤형 공모사업 확대('19년 500명→'20년 1,300명)
 - 조기은퇴 중장년 전문인력 재취업 및 역량의 사회 공헌기회 제공(110명)
 - 참여자 직무역량 및 취·창업 전문교육 강화(연간 200시간)
- 지역기반형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34개 사업 : 신규16개, 계속18개)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활성화(147개 사업 1,206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75개 사업 1,296명)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도시 조성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서울형 생활문화'구현

- '서울 365 문화공연' 확대
 - 찾아가는 전통시장 공연(360회) 및 신규건립 문화시설 등 명소 공연(2.830회)
 - ▶ 클래식, 서커스, 전통연희, 국악, B-boy,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이색 공연
 - 서울시향 및 서울시 예술단(무용, 연극, 오페라 등)의 지방 순회공연(32회)

●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 활동 지원

-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3월, 서교-6월), 마을예술창작소(67개소) 등 거점공간 조성
- 자발적·주체적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축제 활성화

● 향유하고 체험하는 예술교육으로 전환

-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확충(거점형-용산 10월, 지역밀착형-영등포 하반기)
- 사회취약계층을 비롯, 지역과 세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예술교육 확대
 - ▶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 확대(200명→250명). 국악예술강사(238명) 지원 등 학교연계 교육 추진

일상생활에 밀착된 공공디자인, 공공미술 추진

-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및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적용 강화
- '공공미술작품 설치'를 통한 예술명소 조성 및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전시 추진

축제도시 서울로 문화관광 활성화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서울 대표 문화축제 확대

서울드럼페스티벌(5.29~30), 서울국악축제(6.12~13),
 서울거리예술축제(10.1~4), 서울뮤직페스티벌(10.13~18),
 서울김장문화제(11.1~3), 서울라이트(봄, 가을, 겨울)



〈서울드럼페스티벌〉

● 市 주요행사와 연계한 문화축제 개최

- 5·18 40주년 기념행사(서울-광주 연계개최)
 - ▶ 기념음악회, 무용, 연극, 미디어파사드, 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5·18의 의미 재조명
- 세계평화포럼 기간 문화축제 개최 (10월)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9.8~11.22). 세계불꽃축제(10.3). 정조대왕능행차 재현(10.10) 등

인적·물적 문화기반 확충 및 역사문화자원 발굴·활용

▋ 세계적 수준의 문화인프라 확충

- 서울공예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 : '20.10월 개관
 - 박물관 자체가 예술작품이 되고. 공예로 시민과 상생·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 구현
 - ▶ 舊 풍문여고(종로구 율곡로), 전시관, 수장고, 아카이브실(도서관) 등
 - 소장품 : 현재 9.342점(분야별 대표작품 1만여점 추가수집 추진)
 - 전통공예의 정수와 동시대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개관전시 준비



〈서울공예박물관 조감도〉

- '21년 이후 개관예정 문화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현대미술, '21.12월), 서울사진미술관(근현대 사진예술, '23.4월), 서서울미술관(공공미술, '23.8월) 등

● '도서관 도시, 서울' 만들기

- 서울대표 도서과 및 권역별 시립도서관 단계적 건립
 - ▶ 서북('22년), 서남(관악)('23년), 서울대표('25년), 동남·동북·서남(강서)('24~'25년)
- 자치구 공공도서관 지원으로 '걸어서 10분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조성
- 서울형 북스타트, 독서 마일리지 등 전 생애 책 읽는 문화 활성화 추진

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융성' 정책

-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2,785명),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 등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 국악, 연극, 무용, 예술인 지원 등 장르별 종합지원계획 수립 ('20.3~8월)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한 예술인 밀집 거점지역 활성화(중구, 마포, 성북, 영등포)

「2천년 역사문화 도시, 서울」 육성

● 풍납동 토성 역사문화 도시 조성

- 풍납동 토성 박물관, 풍납토성 유구전시관, 유구·유물 재현 등 역사문화 환경 조성
- 문화재·지역주민 상생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대백제문화제 개최 등 지역활성화

● 역사문화 전시관 건립·운영을 통한 시민 교육의 장 마련

남산 한양도성 유적전시관('20.5월 개관), 딜쿠샤 원형 복원('20.11월 개관),의정부 터 현장유적전시관('21.12월 개관)

살아있는 역사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 단순 볼거리를 넘어 시민·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 정조대왕 능행차(10.5~6), 왕궁수문장 교대의식·남산봉수의식·조선시대 과거시험(문·무과) 등

모두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전문체육 발전기반 조성

- 공공기관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직장운동부 확대로 우리시 경기역량 강화
 - 공공기관(市區투자출연기관) 직장운동부 창단 확대('19년 47팀 → '20년 53팀, 6팀 증)
 - 민간기업 직장운동부(장애인팀) 창단 확대('19년 13팀 → '20년 19팀, 6팀 증)
- 체육시설 신규 건립으로 국제적 수준의 전문체육시설 지속 확충
 - 서북권 복합체육시설(빙상장, 인라인 롤러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20,6월) ※ 준공: '24년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기본·실시설계용역('20, 12월) ※준공: '22년

■ 일상 속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마련

-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하여 여가스포츠 환경 개선('20년 94개소 확충)
 - 실내체육시설 17개소(다목체육센터 1개소, 국민체육센터 7개소,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9개소)
 - 학교협력시설 54개소(학교체육시설 개방 50개소, 학교시설 복합화 2개소, 개방형 학교체육관 2개소)
 - 민간활용·공공협치 등 23개소(직장체육시설 개방 4개소 공공협치 체육시설획충 7개소 실외체육시설 획충 12개소)
- 시민 일상 속 생활형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 25개 자치구별 워킹·러닝코스 개발,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대회」개최(10월)
 - 「서울 스포츠의 날(월 1회)」 운영,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등
- 지역단위의 과학적 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
 - 「찾아가는 스포츠 검진센터」(연200회) 운영, 「찾동」과 연계한 지역별 건강취약주민 집중 관리

올림픽 유치 등 글로벌 스포츠도시 서울 육성

● 「2032 하계 올림픽/패럴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차질 없이 준비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 공식 유치준비 조직으로 「유치준비자문단」(50명) 구성·운영(5월~)
- 공동유치 기원 시민주도 「국민유치추진위원회」 구성·운영(10개 분과, 3만명)

IOC 심사준비

- IOC 미래유치위원회와의 유치 협의 및 평가·실사 자료 준비(3월~)
- 비전 컨셉, 올림픽 유산, 지속가능성 전략 및 종합기반시설 확충 방안 수립

공감대 확산 기자 마취 레오웨니 성계 데그미 휴나 파크마서 주지

- 도쿄올림픽 서울시 홍보관 운영(7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개최(11월)
- ➡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키우는 전국장애학생체전(5.19~5.22), 전국소년체전(5.30~6.2) 개최
 - '상상력' 주제 장애학생체전 개회식 연출, 「나의 꿈 릴레이 강연회」진행(3월~)



- 시민봉사단 운영(800명) 및 성희롱·성폭력 없는 클린대회 위해 종합예방센터 설치
- 민간기업, 시민 등과 함께 숙박·음식·교통 등 분야별 환대분위기 조성(4월~)

7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가치 구현

■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대책 선도적 추진
 - '서울형 플랫폼 노동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및 '사회적 협약' 체결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으로 현장밀착형 노동복지 강화
 - 모든 자치구에 설치를 목표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속 확충
 - ▶ ('19년) 18개 자치구 → ('20년) 23개 자치구 → ('21년) 25개 全 자치구
 -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으로 노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노조설립 지원 및 권리구제 확대로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통해 노조설립 지속지원
 - 노동권리보호관 확대(50→ 65명)로 산재·차별시정 등 권리구제 강화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추진 본격화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수립
 - 산업안전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 등 안전보건대책 마련
 - 시스템비계·AI 웹카메라 설치 등 노동자 안전대책 강화(50억미만 사업장)
- 위해·위험 취약계층 작업환경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
 -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 개선 추진(총 652개소)
 - 취약계층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분석 및 보호방안 마련
-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중심 노동안전 강화
 - 폭염/한파 등 위험상황별 지침 및 노동자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마련
 - 건설 등 고위험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노동존중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전태일 열사 50주기와 연계 노동존중문화 확산
 - 전태일 50주기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구성(노동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구성)
 - ▶ 전태일 열사 기일(11.13)을 중심으로 '전태일의 달'(月) 운영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가치 및 인지성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노동 용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유도로 정책공감도 향상
 - ▶ (예) 정규직 전환자의 삶의 변화 / 전태일기념관 등 활용 미래세대 노동인지성 제고



2.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 ① 선제적 시민안전 확보와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확충관리
- ② 쾌적하고 안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 ③ 사람이 존중받는 서울교통 기반 마련
- 4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
- 5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체제 강화
- 6 자원순환 도시 서울 완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7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조성
- 图 자연이 회복되는 한강 조성과 아리수 신뢰도 제고

1

▍선제적 시민안전 확보와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확충∙관리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예방·대용시스템 구현

-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 대비, 재난대응시스템 집중 정비
 - 통합 재난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상황실 공간 재배치, 영상회의시스템 고도화
 - 실전 중심 훈련 강화 : 불시 통지본 훈련(3월), ICTC 가상훈련(7월), 안전한국훈련(9월)
-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 및 민간취약시설 체계적 관리
 - 노후인프라 종합적·선제적 실행계획,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20.6)
 - ▶ 교량 등 18종 시설물 실태평가(~'20.3)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20.4) 중
 - 민간건축물 체계적 안전관리 위한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20.11)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30여개소) 및 안전취약가구 정비 지원(2만9천여기구)
- 폭염·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 폭염·한파 대비 취약계층 집중 보호 : 쪽방촌·홀몸어르신 방문 진료, 무더위쉼터 운영 등
 - 지진 대응역량 고도화: 市 공공시설물 내진율 94.2% 확보 '지진안전센터'설치 (20.1)
-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 안전어사대 점검 대상에 교육청 건설공사장 추가, 타기관 합동점검 강화(4-6개월)
 - '20년 안전감찰 계획 : 정기 3회, 특정 5회, 반부패협의회 공동 협력과제 3회

●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도시 국제적 수준 향상

- 건설 안전문화 정착 위한 현장 감시시스템 구축 및 노동환경 개선
 -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대책 수립 및 추락사 방지 집중 추진 (20.上)
 -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기준 마련('20.3) 및 편의시설(화장실, 탈의실) 확충
-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착
 - 어르신·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 실시
 - 시민감시 네트워크 활성화 : 안전보안관, 더안전시민모임,차도모니터링단 등 5,500여명



VR 기반 어르신 안전교육

- 국제협력을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국제적 위상 제고
 - 제2회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 개최 : 세계 도시안전공동체(GRCN) 설립 추진

빈틈없는 예방·대비로 안전도시 실현

재난취약대상 선제적인 예방관리

- 화재취약대상 초기진화장치 보급 확대
 - 「보이는 소화기」 확대 설치(5,500대)
 - ※ (기본형)화재취약지역 2,500대, (거리형)3,000대
 - 자동 화재진화 간이스프링클러(S/P) 설치 지원
 - ※ S/P 미설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187개소)





〈보이는 소화기〉〈간이스프링클러〉

● 선제적 화재예방 및 자율 대응역량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15,000세대)
-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50개소)
- 소방차보다 빠른 비상소화장치 개선(수관적재 방식 → 호스릴 방식 / 30개소)

최적화된 재난대비로 시민안전 확보

- 첨단 소방장비 확충 및 소방장비 성능개선
 - 고층건물 재난대응용 「68m급 고가사다리차」 권역별 배치(~'22년)
 - ▶ ('18)1대 → ('20) + 1대 → ('21) + 1대 → ('22) + 1대(총 4대)
 - 압축공기포(CAFS) 장착 소방차 추가 도입(17대) 및 소방펌프차 성능개선(4대)
 - 노후 소방헬기 교체(~'23) : 헬기의 성능결정 및 표준규격서 작성(민간참여 심의회 구성)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 노후 소방안전교실 시설개선(3개소) 및 지진체험시설 확대설치(8개소)
-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소방기관과 합동훈련(총 8,064개소)
 - ▶ ('18~'19) 4,125개소 실시 → ('20~'22) 3,939개소
-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운영(717개소)

▶ 효과성 측정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ISP) 발주(5월)

도시인프라 확충 관리 혁신

미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주요 도로망 지속 정비

- 강남순환로 전 구간 개통으로 실질적 순환체계 구축 ('20.12)
- 월드컵대교 본선 개통('20.12), 밤고개길('20.4) · 도림로('20.12) 확장
 등 상습 교통정체 해소



서울 순환도로망

●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공간 개편 사업 신속 추진

- 국회대로 : 지하차도 설계 완료('20.6), 상부 공원화 설계 착수('20.1)
- 서부간선지하도로 : 지역도로 실시설계 완료('20.11)
- 동부간선지하도로 :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上), 재정구간 투자심사(~'20.6)

혁신기술 중심의 도시인프라 관리

노후 포장도로 정비 및 선제적 유지관리

버스전용차로구간 아스팔트 포장 전면 개량 등 포트홀
 저감 대책 추진 : 33,000건 → 16,000건 목표(5년 후)



클린로드

- 폭염·미세먼지 저감 위한 클린로드 확대 : '20년 5개소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20.4) : 교량 2개소 시범사업
- 교량·터널 상시 모니터링센터 기능 강화 : 열린데이터 광장(119, 112 긴급사고정보) 연계,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

● 지하시설물 및 도로노면 안전관리 강화

- 지하시설물 통합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 지반지하시설물건축공사 등 관련 정보 연계
- 노면결빙 예방 제설 신기술 도입 : 센서 활용한 강설감지 제설장치 54개소 설치

●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환경 조성

- 레이더 기반 터널 유고감지시스템 도입 : 남산1호터널 등 15개소
-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 숲 조성 및 소음대책 수립
 - ▶ 올림픽대로 등 2개소(214천주) 수목 식재('20), 소음저감대책 기준 수립(~'20.11)
- 보도육교·지하보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EV, ES) 개선 : 12개소('20~'23)

2 쾌적하고 안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물순환 인프라 혁신으로 물환경 선도도시 구현

물재생 인프라 혁신으로 물산업 육성 추진

- 물재생센터 중심 물산업 클러스터(물연구마을) 조성
 - 미래환경 수요 대비 물재생센터 부지활용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21)
 - 시설현대화사업('27년 중랑 2단계 완료)과 연계 순차적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 기업협의체 구성 및 클러스터 기본구상('20), 공단기업·공단·연구소 공간적 융합('27)



- 친환경 청정 물재생센터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20~)
 - 소화가스를 연료전지 원료로 활용하여 발생하는 열·이산화탄소 재사용
 - ▶ 4개센터 연료전지 총 180IVM(수소차 약 60만대/일 공기정화 및 38만세대 전력공급 효과)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형 물순환자원화센터 조성
 - 하수 발생원 처리로 물의 선순환 회복 및 미래 수처리 환경의 능동적 대비
 - ▶ 시범사업(창동·용산)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0)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녹색인프라 기반 조성

- 물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물순환 건전성 회복 대책 강화
 - 빗물관리 녹색인프라 적용을 위한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보급('20.3)
 - Mapping 기법을 활용 단위구역별 물순환 회복목표 및 관리계획 설정 ('20.6)
 - 유출지하수 수질기준 정립 및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20.10)
- 마은 물도시 구현을 위한 하천수질 미래비전 수립
 - 시민이 공감하는 2030 한강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21년)
 - 수생태계 건강성 강화를 위한 2040 하수도정비 종합계획 ('20~)

쾌적하고 든든한 사람중심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

쾌적하고 시민 친화적인 도심환경 조성

- 도시악취저감 원년으로 종합적·체계적 악취관리 전략 수립
 - 지역별 악취관리등급 지정, 등급별 관리목표 등 설정 ('20.4~'21.11)
 - 하수악취 발생시설(분뇨·슬러지) 악취저감 위한 이격배치·지하화 지속 추진 ('20~)
 - 우수 토실·토구, 유수지 및 생태하천(청계천, 전농천 등) 악취 저감 대책 마련 ('20~)
- 물재생센터 시민친화 문화·녹색환경 중심지 조성
 - 하수도 역사·문화 특화, 시정홍보·체험 및 힐링 녹색 공간 조성
 - ▶ 청계하수역사체험관 국제현상 공모('20.5). 친환경숲 30만주 조성('20~'21)
- 단절된 하천길과 둘레길 연계로 도심녹지 보행길 완성
 - 홍제천('20.3~'21.12) 및 도림천 하천길 조성('20.1~22.12)







홍제천 보행로 구축 기본 구상도

시민이 든든한 재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

- 현장중심 재난 안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시설 확충
 - 침수취약지역(강서구청사거리, 오류역, 길동) 해소 및 빗물펌프장 3개소 신·증설
 - 풍수해 대비 재난정보 전파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강화 ('20.1~)
 - 하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위험지역 하천 순찰단 운영('20.5~)
 - 공사장 유출 지하수(토사)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20.7~)
- 하수관로 종합정비로 시민 안전도 제고 및 재해 없는 공사장 조성
 - 노후·통수능 부족 및 도로함몰 우려 구간 맞춤형 정비사업 지속 추진
 - 돌발강우 대비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매뉴얼 준수 및 공사현장 안전도 중점 점검
- 물재생센터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 주요 노후 시설물 안전성 확보(송풍기 등 25대) 및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20.12)
 - 시설지하화로 인한 공기질 악화, 소음 악취 등 유해환경 개선으로 노동환경권 보장(~'21)

3 사람이 존중받는 서울교통 기반 마련

제2기 도시철도망 구축 10개년 계획 본격 추진

- 서울시 전역에 대한 중장기(10년 단위) 도시철도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공급계획 수립
 - 민자사업으로 장기 미추진 중인 노선(면목, 목동, 우이신설연장, 난곡)에 대해서는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해 재정 적극투입 등 공공의 역할 확대·강화
 -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효과 등을 고려, 교통소외지역에 사업우선 추진
- 시민이용,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 추진
 - 도시철도 연장·광역철도 추진 원칙검토(정책연구 시행 '20.)
 -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사업 추진
 - · (서북권)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중('18.7~)
 - · (동남권) 원종홍대선 예타 대상사업 신청 의뢰(시→국토부, '20.)
 - 위례과천선은 차량기지 위치 및 노선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진행중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

- 지하철 공기질 개선
 - 지하철 미세먼지 오염도 50%이상 저감 추진 ('22년까지)
 - 역사, 전동차, 터널별 맞춤형 개선 추진 및 미세먼지 기술 선도체계 구축
-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개선
 - 2,4,7호선 : 제2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계 및 급행화 추진
 - 9호선 : '22년까지 36칸 증차 및 8칸化 검토 용역으로 장기 계획 수립
 - 우이신설선 : 첨두시 열차 운행횟수 2회(48 → 50회) 증회 ('20.4.~)
- 내진보강 및 노후 시설물 개선
 - 내구연한 경과 노후 전동차 교체 지속 추진(~'27)
 - 도시철도 성능평가결과 C, D등급 노후시설 개선 지속 시행(~'23)
 - 내진설계 미 반영 1~4호선 교량 및 지하터널 보강 추진(~'22)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및 이용 시민 및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 개선

-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및 이용편의 향상
 - 투명성 강화 : 채용 절차 체계화, 외부회계법인 pool 구성 및 결과 검증
 - 경영개선 유도 : 평가체계 엄격화, 비리·사고 발생회사 재정지원 제외
 - 처우개선 : 후생복지 시설 개선,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 상향

● 버스정류소 첨단 스마트쉘터 도입

- 지하철 승강장에 준하는 첨단·편의기능의 스마트쉘터 구축
- 중앙차로 및 시민이용 많은 노선 우선 도입('20년 10개소) 후 전체로 확대
- 각계 전문가(공공건축가, 관련기업 등) 참여를 통한 시범설치 정류소 선정

● 대용량·친환경(전기·수소) 버스 도입 등 차량 고급화

- 첨두시·심야시간대 버스혼잡 완화를 위한 대용량 버스(굴절·3도어 등) 시범 도입
- 친환경 전기·수소 버스 도입 가속화('20년 전기버스 285대, 수소버스 17대)
 - ▶ '25년까지 전기·수소버스 3,000대 도입 목표

기본에 충실한 택시 만들기 ― 3無 정책 강력 추진

● 심야 택시 공급 확대 및 승차 거부근절

- 개인택시 휴무일 변경을 통한 심야 공급확대(22천대→25천대)
- 승차거부 과다 법인업체 일부운행정지(60일) 분기별 지속 처분('19년 4회 : 29개사 946대 처분) 등으로 전년대비 민원 50% 이상 감축 추진
 - ※ 승차거부 민원 감축 목표 : ('18년) 6,200건 →('19년) 3,100건 → ('20년) 1,500건

부당요금(시계외할증 부당적용) 근절

-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통해 시계외 자동할증 도입하여 부당요금 원천차단
- 부당요금 과다 법인업체 대해서도 일부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반기별)

● 담배냄새 없는 깨끗한 택시 만들기

- 택시 운전자 흡연실태 전수조사 실시('20.2)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금연 교육 강화 및 차량환경 일제 점검시행('20.3~)

4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정착

-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 자전거전용도로(CRT)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청계천로 도심순환형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 자전거도로 안전·편의시설 확충(시선 유도봉, 거치대 등) 및 정비
 -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확대 및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안전이용 문화 확산

● 공공자전거 확대 및 이용서비스 개선

- 공공자전거 총 4만대(1.5만대 추가) 운영 및 대여소 총 3,040개소(1,500개소 추가) 확충
- 공공자전거 단말기 개선(LCD 방식→QR방식 도입)
- 새싹따릉이 및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
- 자전거 정비방 '따릉이포' 운영을 통한 지역 소규모 자전거 대리점과 상생협업
 - ▶ 고장자전거 원활한 수리를 위해 대여소와 가까운 점포(따릉이포)에 정비 위탁

│ 「걷는 도시, 서울」구현

-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 감속을 위해 전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21년)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주 출입구 불법노상주차장 일제정비(417면)
 - 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점 사고분석을 통한 지역별 맞춤 시설개선(14개소)
 - 장애인이 직접 참여, 교통약자 눈높이에 맞춘 보도시설 개선(강북권 866km)

자동차보다 보행자가 편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녹색교통지역인 도심부 주요도로 재편을 통한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공간 확대
 - ▶ (공사)세종대로, 을지로, 창경궁로 등 5개 도로 7.4km, (설계)소공로, 장충단로 2개 도로 1.22km
-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한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30개소)
- 서울대입구역 일대 등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사업을 통한 정책 확산

시민 보행권 인식 제고를 위한 보행문화 활성화

- 일시적 축제가 아닌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차 없는 거리' 확대 운영
 - ▶ 도심 대표 나들이 코스 덕수궁길은 365일 연중 차 없는 거리로 확대 운영('20.2~)
 - ▶ 자치구 대표 지역축제, 관광자원 등 지역 맞춤 '차 없는 거리'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 -보행 관련 유일한 국제적 행사인 「Walk21서울 국제 보행 컨퍼런스」 개최 ('20.9.)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체제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조성

- 미세먼지 원인 연구 강화 및 시민 노출 저감
 - 배출원 정밀조사, 국외 영향 등 체계적 분석 추진
 - 시 전역 간이측정망 구축('20년 550대) 및 측정 정보 공개



〈미세먼지 공간분포 예측〉

●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및 배출원 관리 강화

- 1차년도 계절관리제 평가를 통해 2차년도 보완·강화 시행 ('20.12~'21.3)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 등급제 기반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확대 및 노후운행차 저공해화 확대

- 녹색교통지역·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19년) ⇒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20년~)
- 경유차 감축을 위한 폐차보조금 상향지원(165 → 300만원) 6만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2만대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발족 및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개최(6월)
- 서울-베이징 정책워크숍 시행(5월) 등 환경교류 협력 강화

기후위기시대.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장기계획 수립 추진

- 시민·전문가와 함께 2050년까지의 분야별 대응 전략 및 감축목표 설정
-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승인 후 C40 제출 ('20.12)

태양광 미니발전소 및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확대

- 민간 시설·공공 부지에 태양광 227MW 설치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158천가구 보급 추진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비 효율 및 시공기준 개선, 보급업체 선정·관리 강화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으로 충전 편의성 제고

- 화물·택시·승용·이륜 등 전기차 보급('20년 10,000대) 및 충전기 290기 구축
- 충전 능력을 고려한 수소차 보급('20년 1,250대) 및 권역별 충전인프라 구축('20년 7개소)

● 에너지자립마을 운동 확산 및 에너지절약 신기술·신서비스 도입

- 공동체형 에너지자립마을 교육·컨설팅 등 지원 ('20년 70개소)
- 시민이 에너지 생산거래 주체로 참여하는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모델 조성('20년 1개)

6

지원순환 도시 서울 완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자원순환 자립 선도도시, 서울'조성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자원순환도시 구축
 - 자원회수시설 신규설치 및 공동이용 확대로 처리용량 확충('25년까지 1.120톤/일)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과리제 지속 추진, '25년까지 '18년 대비 생활폐기물 10% 감량
 -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용량증설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24년까지 424톤/일)
-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처리시설 지속적 확충
 - RFID종량기(3,300대) 및 감량기(30대) 확대 보급, '음식물 남기지 않기' 시민홍보·교육
 - 강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체건립 추진(음식물 300톤/일, 음폐수 300톤/일)

■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및 재활용 - 새활용 활성화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적극 추진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 민간 위탁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
 - 배송용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등 신규사업 모델 발굴·추진
-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 및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조성
 - 업사이클 기업,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포럼(6·9월), 페스티벌(9월) 등 개최
 - 시민생활 밀착형 자원순환 공간인 리앤업사이클플라자(가칭) 조성('25년까지 25개소)

■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

-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 및 도로청소 강화로 도시 청결도 향상
 - 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취약시간대 청결기동대 운영(7개구 31개 주요도심지역 69명)
 - 시민이 직접 지역청결도를 평가하는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실시(3회)
 - 계절관리제 기간 중 중점관리도로(41개 구간) 청소강화 및 도로청소차 지속 보급
-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대책 추진

악 취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30개소)
- → 시·구 합동으로 악취배출사업장 하절기 집중 지도점검 추진

소 음

→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50개소) 및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강화

석 면

- ▶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 ▶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및 컨설팅 추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조성

지속적인 녹색공간 확충으로 더욱 푸른 도시 조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3천만그루 나무 심기' 사업 추진
 - ─ 민관 협력을 통해 민선 6·7기 통산 3천만 그루 나무 식재('20년 400백만 그루 목표)
 - 한강·하천변, 학교·통학로, 건물 옥상 등 식재 환경을 반영하여 다양한 숲 조성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대책 추진
 - 도시계획시설 공원 내 사유지 보상 지속 추진('20년 1.39㎢, 8,552억원 보상 목표)※ 보상 대신 소유를 원하는 학교법인 등의 사유지의 사용계약을 통해 공원기능 유지
 - 보상용지 외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한 곳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관리(67개소 67.2km²)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문화 도시 실현

-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즐기는 녹색 공간 조성
 - 도심 가로변 그늘목 쉼터 조성으로 보행자 휴식처 제공('20년 50개소)
 - 공원, 광장 등에 이동식 수목화분을 설치하여 '움직이는 숲' 조성('20년 5개소)
- 시민 참여로 함께 가꾸는 초록문화 구현
 -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20년 21개소),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추진('20년 9개소)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20.10.) 및 '서울, 꽃으로 피다' 시즌 2 캠페인 시행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안전 도시 구현

-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바람길숲 조성
 - 서울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바람을 도심으로 유도하여 맑은 공기 순환
 - 강북권(중랑천·우이천 일원), 강남권(안양천 일원) 2개소 1차 공사 시행 ('20.6.)
-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 조성
 -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20년 23개소) 및 단절된 녹지축 연결('20년 4개소)
 - 민관 협업을 통한 한강 일대 천연기념물(제330호) 수달복원 추진
- 산사태와 산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 산사태 예방사업 시행('20년 75개소),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20.4월~10월, 100명)
 - ─ 산불 진화 헬기 22대 추가 확보(19년 8대→20년 30대), 드론 활용 산불 감시·예방 추진

8

자연이 회복되는 한강 조성과 아리수 신뢰도 제고

울창한 한강숲 조성

-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울창하고 빽빽한 한강 숲 조성 (총 15만주 식재)
 - 수변 생태환경에 맞는 이용숲, 생태숲, 완충숲 등다양한 테마숲 조성 ('20.6)
 - ▶ 뚝섬 나무터널길, 망원 향기숲, 난지 맑은 공기숲 조성
 - 시민들의 손길로 만들어 지는 참여숲 조성 ('20.11)



(울창한 완충숲)

- 시민이 뽑는 '아름다운 한강숲길 10선' 발굴선정
 - 한강숲 조성효과 홍보 및 관광자원화 추진
 - 한강숲 조성지, 기존 녹지, 자연 숲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한강숲길 10선' 발굴 및 선정 ('20.10)



[한강 단풍숲]

자연형 호안 복원 및 생태군락지 조성

- 생물다양성 보전의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소재(돌, 흙 등)로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증진 및 수변경관 향상
 - ▶ 광나루(1.2km, '20.6), 뚝섬·망원(1.7km, '21.6)



[이촌 복원사례]

● 위해식물 제거 및 자생수종 식재를 통한 생태군락지 조성('20.6)

행복 꽃길・꽃밭 조성

- 계절별 꽃 식재로 행복한 꽃길·꽃밭 조성 ('20.10)
 - 한강공원 산책로·자전거도로변 꽃길 조성(42km)
 -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향토작물 단지 조성과 유채(5월)·메밀(10월)꽃 축제 개최



[난지 유채꽃 단지]

자연 한강 회복을 위한 청소개선대책 지속 추진

-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자연 친화적 한강 조성
 - 입점업체 쓰레기 실명제,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 지정, 새벽 청소기동반 운영 등 청소개선대책 지속 추진으로 쓰레기 감량 및 청결한 공원 조성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선제적 수질관리
 - 상수원 및 원수 수질관리 21지점(상수원 16지점, 취수원 5지점)
 - 생물경보시스템 활용 및 취수원수 실시간 자동수질감시
 - 수질오염 대비 미규제 신종 미량물질 모니터링 강화('19년 155 → '20년 160항목)
 - 세계보건기구(WHO) 수준(166항목) 이상 정수 수질검사(171항목)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 그대로 전달

- 4단계 수질감시 : 취수장 → 정수장 → 배수지 → 수도꼭지
- 아리수 생산·공급 전 과정에 식품안전관리 기법 ISO 22000 도입('17년~)
-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잔여분 138km 중 28.8km를 '20년 상반기 까지 교체완료
- 수도꼭지 수돗물 소독상태 최적 관리(잔류염소 농도 0.1~0.3mg/L 유지)

●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72만m² → 95만m²)
-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배수지 확충('20년 5월 낙산, 수유6배수지 완공)
- 상수도 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체계 확립

먹는 물로서의 아리수 위상 강화

● 수도꼭지 수돗물 불신 해소

- 다가구, 공동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지원('20년 3만 4천 가구)
-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아리수 품질확인제 시행('20년 22만 가구)
- 수질자동측정기 확대설치를 통한 수질모니터링 및 수질정보 공개
 - ▶ Arisu Map, 수질전광판 등 탁도·잔류염소 정보제공
 - ▶ 수질정보 주기 개선 : 1시간('19년) ⇒ 20분('20년)

수돗물 시민 신뢰도 제고

- 납성분이 Zero수준에 가까운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으로 시민불안감 최소화
- 설거지와 음용을 병행하는 싱크대에 음용전용 수도꼭지 설치로 음용환경 개선
- 체험과 참여를 통한 음용기회 제공으로 아리수 음용문화 확산
 - ▶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전개, 물맛 블라인드 테스트 등



3.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 돌봄체계 강화와 복지전달체계 혁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2 완전한 아이돌봄과 모든 가족 포용의 따뜻한 도시 구현
- ③ 서울케어-건강돌봄 확대로 시민 건강형평성 강화
- 4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

물봄체계 강화와 복지전달체계 혁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둥주민센터 기반의 지역돌봄공동체 완성

골목단위 주민과 공공의 협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선7기 찾 · 동 비전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

- ❖ 촘촘한 주민 관계망: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 ❖ **튼튼한 공공 안전망** : 존엄한 삶을 권리로써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 강화
- ※ 강남 16개 동을 끝으로 '찾·동' 25개구 425개 전 동으로 확대 시행('19.7)

골목 단위 주민의 관계형성 및 주민공동체 돌봄활동 강화

- 골목마다 움직이는 '시민 찾동이' 운영 : '19년 20만명 위촉
 - ▶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찾동 역할, 시민카드 등 활동 지원
- 주민 모임의 장, '찾아가는 골목회의' 운영 : '19년 2,542회, 27,854명 참여
 - ▶ 10명 내외 주민이 이웃(주민)과 함께 의논하는 회의에 대해 공공이 지원

● 찾·동을 구심점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돌봄활동, 마을생태계 강화



- ① 빈곤취약 주민을 위한 돌봄 소모임 '나눔이웃'
- ② 주민 관계망을 통한 고독사 예방 '이웃살피미'
- ④ 지역건강을 위한 주민 활동, 치매환자 지역돌봄
- ⑤ 골목공동체를 위한 '이웃만들기'

골목골목 시민 삶의 보루가 되도록 공적 발굴·지원체계 강화

- 고위험 1인 가구 체계적 관리 : 매년 전수조사, 사물인터넷 활용 상시 모니터링 등
- 72시간 내 찾아가는 돌봄 SOS 시행 : 5개구 88개동('19년)⇒'22년까지 전 동 단계적 실시
-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19년 2만 가구⇒'20년 2만5천 가구('22년까지 3만5천 가구)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재산기준 완화

서울형 복지정책 고도화를 통한 공공ㆍ통합 돌봄체계 강화

공공돌봄의 표준 확립,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운영 확대

- 공공이 책임지는 복지시설 운영 확대로 돌봄서비스 新생태계 구축
 - 종합재가센터 추가 개소(8개소)로 서비스 질 제고와 공공성 강화 : ('19) 4개→ ('20) 12개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운영(5개소)을 통해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보육표준 정립
 - ▶ '20년 개원 확정 어린이집 : 노원(3월), 서대문(4월), 영등포(6월)
- 사회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민간 사회서비스 품질개선 견인
 - 사회서비스원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종사자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전문컨설팅 및 민간기관 종사자 교육 등 민간 지원사업 추진 통한 상생방안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구현, 「돌봄 SOS센터」 운영 확대

- 동 단위「돌봄SOS센터」설치 확대, 돌봄 필요시민에 통합서비스 제공
 - '20년 8개 구 신규 시행 : ('19) 5개구 88개동 → ('20) 13개구 228개동 ※ '21년까지 25개구 확대
 - 전문상담 및 서비스 연계 위한 돌봄매니저(사회복지, 간호직 공무원) 동별 배치
 -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서비스(맞춤형 8대 서비스) 지원
 - ▶ 8대 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시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서비스
- 기존 공적서비스 대상 제외자(중장년 가구) 등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19)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 → ('20) 중장년가구(50세 이상)
 - 서비스비용 지원 확대 : ('19)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 ('20) 중위소득 85%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및 기초보장제도 개선 추진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확대
 -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 ('19) 242백만원 → ('20) 257백만원
 - 서울형 긴급복지 내 돌봄서비스 비용(저소득층 '돌봄SOS센터' 비용) 지원 신설
-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및 보장수준 강화
 -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20.1월~)
 - 보장수준 강화 : 생계급여(2.94%↑), 해산급여(60만원→70만원), 장제급여(75만원→80만원)

지역사회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복지

장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 인프라 확충

-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지·문화공간「어울림플라자」조성
 - 장애인 연수시설, 치과병원 등 장애인특화시설및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화·체육공간 조성
 - 장애인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지속적인 소통 추진



※ 설계 완료 및 구 정보화진흥원 건물 철거('20. 7월)

- 장애인 재활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전용시설 확충
 -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인복지관(은평) 건립, 복지관 확대 : ('19) 50개소 → ('20) 51개소
 - 농아인 및 시각장애인 여가생활·자기계발 위한「쉼터」확대: ('19) 10개소 → ('20) 19개소
-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추가 확충(8개소) : ('19) 18개소 → ('20) 26개소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확대 : ('19) 21개 복지관 95명 → ('20) 24개 복지관 107명

지역사회내 장애인 자립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생활편의 개선

- 주거지원 체계 마련과 자립기반 확대로 '지역사회로의 통합' 강화
 - 독립생활 희망 장애인 대상 지원주택 확대(60호): ('19) 68호→ ('20) 128호
 - 탈시설 장애인 사회참여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전년 대비 지원대상 88%, 지원시간 140%)
 - ► ('19) 퇴소 후 2년간, 월 50시간(80명) → ('20) 퇴소 후 2년간, 월 120시간(150명)
- 장애인 자산 형성 및 소득 지원으로 생활안정 강화
 -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이룸통장' 확대('19) 1,657명/23억원 → ('20) 2,657명/39억원
 - 장애인 연금(월 최고 30만원)수급계층 확대 : ('19) 기초생활수급자 → ('20) 차상위계층
- 고령 및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대상 생활편의서비스 확대로 이동권 보장
 -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전 장애유형) : 비휠체어장애인(8,000명), 시각·신장장애인(7,000명)
 - 민간연계 통한 바우처택시 확대 : 나비콜, 엔콜 택시 외 카카오택시와 업무협약('20년 하반기)

구 분	
이용대상 인원	
바우처택시 운영대수	

2019년	
8,000명	
8,000대	



2020년
15,000명
70,000대

중장년 · 어르신의 활력있는 삶과 가쪽의 돌봄부담 감소 위한 환경 조성

어르신과 중장년의 소득보장 및 재도약 기반 마련

- 중장년 인생 재설계를 위한 50+ 지원 시설 인프라 확충
 - 지역별 특화, 50+캠퍼스 및 센터 권역별 확충 : ('19) 9개소 → ('20) 14개소

2019년

- ▶ 50+캠퍼스 3개소 운영(서부, 중부, 남부)
- ▶ 50+센터 6개소 운영 (도심권,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2020년

- 50+캠퍼스 4개소 운영(북부캠퍼스 1개소 개관)
- ▶ 50+센터 10개소 운영 (금천, 강서, 서초, 강동 4개소 개관)
- ※ 50+캠퍼스 조성('22년까지 6개소) : 북부(문화산업 창업&연수, '20.9월 준공 예정), 동남(50+소셜벤처&기업연계, '21.9월 예정), 동부(대학&중소기업 연계, 22.6월 예정)







〈50+북부캠퍼스〉

〈50+동남캠퍼스〉

〈50+동부캠퍼스〉

- 어르신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78,800명)
 -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 76,000명 창출('19년 75,544명 대비 456명 ↑)
 - 50+세대 중장년 보람일자리 : 2,800명 창출('19년 2,273명 대비 527명 ↑)
 - ▶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업 네트워크 강화로 일자리 연계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르신 돌봄환경 조성

- 어르신 안심 복지인프라 확충
 - 수요대비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실버케어센터(요양시설)」 우선 확충
 - ▶ 공립요양시설 6개소(시립 5, 구립 1),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6개소(개보수 6)
 - 부양가족 돌봄부담 감소 위해 주야간 보호시설(데이케어) 확충



► 데이케어센터 추가 개소(6개소) : ('19) 444개소 → ('20) 450개소

〈동대문실버케어센터〉

- 대규모 민가바발시 공공기여(기부채납) 요양시설 유치 ※ 도시재생실 협의
- 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통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 기초수급자 및 최약계층 어르신(45,000명)에게 재가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제공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243개소(데이케어 194, 노인의료복지 49) 운영, IoT(7,500대)
 -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수립('20년 하반기)
 - 돌봄종사자 및 돌봄가족 지원 : 센터(4개)/쉼터(8개) 운영, 돌봄가족 휴가제(1,700명) 등

2 완전한 아이돌봄과 모든 가족 포용의 따뜻한 도시 구현

■ 국공립어린이집 등 영유아 공보육 인프라 확충

- 지역과 규모를 고려한 전략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 평균 이용률 39% 이하 비강남권 자치구(은평 등 11개) 우선 지원
 - 중·대규모(60인 이상) 시설 집중 확충 : '20년 130개소(국공립 이용률 45% 달성)
- 맞벌이 등 수요에 맞춘 거점형 야간보육 확대 : 84개('19)→150개('20)
 - 국공립 중심 거점화, 보육교사 인건비 100%, 보육도우미 지원 등
- 긴급 돌봄수요에 대응, 토요 시간제 보육 시범 실시
 - 휴일 어린이집(82개소) 대상, 토요시간제 시설 지정 : ('20년) 50개소(100개반)
 - 13개월 이상~만5세 미만 영유아 대상, 토요일 06:00 ~ 18:00(공휴일 제외)

▮ 초등 방과 후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 더 좋은 돌봄을 위한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 대폭 확충
 - 중소형 키움센터를 지원할 거점형 확충 확대 : 10개소('20) → 25개소('21)

빠른 설치를 위해 임치형으로 추진 [1日계] $(\sim 21년)$ (민간물 암차 리모델링 \rightarrow 기부채납시설 0전) \Rightarrow ($\sim 25년$)

[2단계]

복합기능 시설로 신축 (문화예술 등 다기능 운영)

- 지역 균형발전과 돌봄수요 고려한 일반·융합형 조기 확충
 - 집·학교 10분 거리 일반·융합형 조기 확충 : 102개('19)→212개('20)→375개'(21)
 - '20년 상반기 공간확정 및 예산교부 완료 → 11월까지 모든 센터 개소 추진
- 돌봄 지역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열린육이방' 확대
 -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확충 : 74개소('19) → 144개소('20)
 - 육아공동체 활동 지원 : 41개('19) → 50개 이상('20)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

- 1인가구 인프라 구축 등 생활밀착형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확대 : 1개소('19) → 20개소('20)
 - 근로 저소득(연 1천만원~2천만원 이하) 1인가구 임차보증금(이자) 신규지원 : 1,000명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가사서비스 확대: 200가정('19) → 350가정('20)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지원('20년 16가구),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등
-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외국인주민시설 운영: 17개소(글로벌센터 등 4개, 글로벌빌리지센터 7개,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
 - 다문화가족 돌봄지원 :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제공(150명), 시간제 아이돌봄(4,800명)

3 서울케어-건강돌봄 확대로 시민 건강형평성 강화

누구나 차별없이 누리는 서울케어, 건강돌봄 체계 구축

▋ 서울케어-건강돌봄 확대로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 강화

- 찾동 시립병원 발굴 건강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 복합만성질환자, 독거·고립 등 사회적 건강 취약계층 대상(연인원 약 12,000명)
 - 건강상태 포괄적 접근으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제공 및 지속관리
 - ▶ 만성질환관리, 영양관리 및 식품지원, 재활운동, 복지서비스 연계 포괄적 제공
- 거동 불편자 대상으로 마을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 욕창·튜브관리 등 재택의료 범위 및 왕진 확대: '19년 70명 → '20년 500명
 - 서울시 의사회와 협의체 운영으로 민간의사 참여 촉진
- 건강돌봄 조기안착과 활성화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지역 포괄케어 거점 공간으로서 보건지소 지속 확충 : 32개소('19년)→35개소('20년)
 - 보건(지)소 건강돌봄서비스 수행 전담팀 확대 운영: 10개구('19년)→16개구('20년)
 ※ 전담팀: 마음의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자사, 영양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5~10명으로 구성
- 지역사회 건강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사업·단체와 연계·협력 강화
 - 시립병원 퇴원화자, 민간의원 재택의료 연계로 적극적 대상자 발굴 확대
 - 지역의사회, 약사회, 병원, 복지 관련부서 참여 지역별 실무협의체 운영

▌ 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돌봄체계』구축

- 시민, 전문가가 함께 수립하는 『2030 서울시정신건강종합계획』 선포
 - 당사자 및 가족, 전문가 등 100인이 참여하는 정신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30『서울시 정신건강종합계획』대시민 발표 : '20년 4월
 - ▶ 서울시민 우울 스트레스 예방, 정신응급대응, 중증정신질환자 지원체계, 자살예방
- 365일 지역사회 정신응급 및 위기 대응체계 강화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으로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 대응 강화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위기관리 서비스를 위한 『안정화 쉼터 운영』 연구
-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신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를 지닌 고위험 미동의자 관리 방안 마련(하반기)
 -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 : 48명('19) → 59명('20)
-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권익보호 기반 조성
 - 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센터」개설·운영(신규): 0개소('19)→ 2개소('20)
 - 정신질환자 가족지원 및 당사자 권익보호 : 자조모임, 교육, 차별해소 인식개선 등

시민이 믿고 찾는, 공공의료에 앞장서는 시립병원 확산

- 권역별 거점 시립병원 확대 및 인프라 개선
 - 감염, 응급, 재활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강화
 - ▶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및 서남병원 증축,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 ▶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 및 강북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한 연구 진행(재단) ※ 장아인 구강전료 접근성 확충 (동북권 1개소 → 동북권·사급권 2개소)/ 실시설계 완료 (20. 7월)
 - 지역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 ▶ 권역 책임의료기관(서울대병원), 지역(동북,동남,서북,서남) 책임의료기관 지정 ※ 필수의료협의체 구성. 공공보건의료재단 지원 강화. 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신설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감도〉 〈서남병원 증축 조감도〉 〈제2장애인치과병원 조감도〉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탐' 신설을 통해 퇴원환자의 체계적 건강관리

- 시립병원 공공의료사업 조직개편 및 추진인력 배치로 체계적 서비스 제공
 - ▶ 각 시립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산하 팀신설 및 5개 병원 인력 증원(간호사1, 사회복지사1)
- '시민건강포탈 시스템' 내 시립병원-보건소 간 연계 시스템 구축
- 서울시, 9개 시립병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인권·소통으로 혁신하는 '직원이 행복한 시립병원' 조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으로 직원 안전교육 및 건강관리
 - ▶ 직원대상 스트레스 돌봄 프로그램 확대 운영 <1개소('19) → 5개소('20)>
 - ▶ 찾아가는 심리상담. 미술치료. 힐링데이 운영 등
- 시립병원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후 표준매뉴얼 개발적용 및 타 시립병원 확산
- 서울의료원의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운영으로 직원 고충처리 강화
 - ※ (조직/인력구성) 갈등·심리·정신건강 전문 전담인력(7명) 운영 (기능) 직장내 괴롭힘·성추행·폭언·폭행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조사. 고충처리. 감정노동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발생 시 적극 조치

건강형평성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 건강권 강화

■ (임신 · 출산) 공정한 건강출발을 위한 임신 · 출산 지원 강화

- 맞춤형 임신·출산 공공서비스 대폭 확대: 12개구('19년) → 25개구('20년)
 - 난임조기검진(항목) 및 예방사업,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확대
-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 주기적 간호사 방문, 건강 관리 및 교육 제공※ 방문간호사 71명이 기관별 월 1.5회~2회 방문
- 임산부·영유아 통합건강관리 기반 조성의「모자건강센터」설치 운영
 - 모자보건 컨트롤타워 역할 및 One-Stop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청소년) 참여와 협치를 통한 미래세대 건강권 강화

- 청소년 흡연예방 및 주류 접근 최소화
 - 학생주도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전면 확대, WHO 및 블룸버그 재단 협력 등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 참여 담배광고 규제 추진
 - ▶ 영향력 있는 매체 활용 눈높이 홍보 추진 및 청소년 토론회 시·시교육청 공동개최
 -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 판매 모니터링 및 주류광고 규제·계도·홍보
- 청소년 특화 비만예방 사업 추진 확대
 - '돌봄에 건강을 더하다' 우리 아이 건강 더하기 : 25개구 550개소 이상
 - '걷기 습관 프로젝트' 청소년 아침 걷기 : 25개구 50개교 이상

▋ (중장년)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 일용직 등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정착
 -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검진 1일), 1일 84,180원, 지급인원(목표) 5,000명 ※ '19년 6.1. 사업시행 후, 총 신청 4,345명, 지급액 11억 3천만원
 - 신청기준 완화 · DB개발 · 관계기관 협업 강화로 민원편의 및 실효성 제고

■ (노년) 치매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시 만들기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서울형 치매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마련
 - 지역사회 사각지대 치매발굴 및 조기검진, 치매전문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강화
 - 다양한 형태의(반일제, 요일제, 주말운영)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가족 부담 경감
- 서울시 '치매 친화적 안심환경' 조성 강화
 - 지역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제도 확대 운영
 ※ (1단계) 5개구 90개('18년) → (2단계) 25개구 317개('19년) → (3단계) 25개구 350개('20년)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감염병 안전

■ 통합적 먹거리전략 추진으로 지속가능 도시 서울 선도

- 행복한 먹거리 시민의 삶으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 먹거리전략 핵심가치를 생태, 경제, 행복까지 확산·융합하여 통합추진
 - 민-관 협치를 통한 서울 먹거리전략 2030 추진체계 마련
 - 기후 및 인구 구조변화 등 먹거리환경에 대응하는 먹거리전략 제시
- 지속가능한 식생활 확산으로 시민 평생건강 역량 강화
 - 건강·영양 중심에서 바른 먹거리, 환경과의 조회를 담는 통합적 식생활 교육으로 전환
 -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능동적 식생활관리 역량강화
 - 이웃과 함께 담그는 전통장 '서울장독대사업' 학교·마을로 확산
 -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대시민 공유·확산을 위한 '서울 먹거리문화 축제' 운영
- 세계도시 푸드정책 추진 위한 국제협력 및 교류확대
 -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이행으로 국제협력 관계 강화
 - 동아시아 먹거리정책 추진의 주체도시로 선도적 역할 추진

■ 서울형 환경보건 기반 구축 및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집단시설 결핵발생 대응 강화 및 취약계층 집중 결핵관리 실시
 -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결핵관리반 구성 운영
 - ▶ (구성)팀장1명, 결핵역학조사관 4명, 결핵사례관리사 3명, (운영)권역별 4개권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취약계층 집중 관리, 유관기관 토론기반 훈련 실시
- 감염병 현장 위기대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수도권 광역 실무 협의회」 운영 강화(연 2회→수시)
 - 역학조사관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정원 3→6명 요청, '감염병조사관' 심화과정 운영)
 -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대비 즉각적인 격리입원 체계 구축
-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른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고도화
 -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상시 구축 운영(법정:해외유입 감엽병 웹보고)
 -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 감시체계 강화(모니터링, 조사반 및 예보제 운영)
- 집단감염 발생 제로를 위한 감염관리 기반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60개소)
 - 의원 감염관리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직원교육 및 취약점 개선 지원 등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동물유래 인수공통 전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 야생·반려·유기동물 인수공통 전염병 모니터링 검사 추진(1,000마리)
 - ▶ 대상질병 : 코로나바이러스, 광견병, 얼리키아증, 라임병, 아나플라즈마병, 심장사상충증
 - 대학교수 자문, 보환연, 자연생태과 등과 협업하여 인수공통질병 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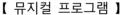
▍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

방과후 자녀걱정 제로, 틈새 없는 방과후 활동 지원

- 市·區에 방과후활동지원센터 설치하여 전 지역에 꼼꼼한 방과후 지원체계 구축
 -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함께 초·중·고생 단계별 맞춤형 방과후 지원

- 우리 동네 키 음센터 ▶ <mark>초등학생</mark> 방과후 돌봄 지원
 - **방과후활동지원센터** ▶ 중·고등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
- 청소년 방과후 정책 추진을 위한「방과후활동지원협의회」구성 운영
 - 청소년 방과후 종합지원계획 수립, 의견 조정 및 주요시책 자문 등
 -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TF 구성







【 배드민턴 프로그램 】



【 코딩(파이썬) 프로그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폭 확대

- 창의자율적 교육 실현을 위한「서울형 대안학교」지원
 - 시민의식, 민주적 의사결정,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서울형 대안학교」모델 확립
 -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비, 임대료 및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신설 등
 - 대안학교 교사 대상 국내외 선진학교 및 기관 연수과정 제공
 - '20년 20개소 내외 선정, '21년 요건 충족 학교 30~40개소 확대
- 치유와 소통, 예체능 등 건강한 체험활동 지원
 -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치유와 힐링을 위한 '산촌유학' 교류 시행('20년 100명)
 - 언제든지 자유 이용 가능한 '꿈드림 독립공간' 조성('20년 하반기 시범 2개소)
 - ▶ 학습공간, 놀이공간, 또래와의 소통공간 등 다용도 전용공간, 직업훈련 장소 제공
- 위기청소년 돌봄·복지 강화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이동·일시·단기·중장기·자립지원관 등 보호 주기별 18개소 쉼터 운영
 -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 300명(2.7억), 직업교육 등 진로학습비 300명(3억)
 - 학교 밖 청소년 안내수첩 제작 배포 및 학교 밖 청소년 연합 행사(캠페인) 등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학습 지원

- (아동·청소년)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콘텐츠」운영
 - 어린이영어, 코딩 등 학습능력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한 신규 과정 개설
- (청년) 삶의 방향 설정을 위한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 인생설계 프로그램, 미니 갭이어 등 다양한 사고와 경험의 기회 제공
 - 직장인·휴직·퇴사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신설 등 프로그램 다양화
- (성인) 시민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이고 심화된 과정 운영
 - 민·관·단체 협력을 통한 서울자유시민대학 확대 운영
 - 생애 전환기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서울 인생학교 운영모델 마련
- (어르신) 생활 밀착형 「문해교육」확산
 - 문해교육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어르신 문해교실」 신설 운영
 - 세상을 읽는「디지털 생활문해 교실」활성화



【 모두의학교 】



【 정동캠퍼스(가칭) 】



【 동남권캠퍼스 】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강화

- 친환경 학교급식 연차별 확대 및 안정적 지원
 - 고3('19년) → **고2·3('20년)** → 고 전체('21년)

'19년(723천명)		'20년 확대(761천명)
	\Box	
국사립초, 국제중, 고3 확대	r	고2, 각종학교(중,고), 특수학교 추가

- 보건환경연구원, 친환경유통센터 등과 협업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체계 강화
- 지속가능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확산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생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친환경급식 제공
 - ('19년) 13개구 10센터 → ('20년) 15개구 12센터로 공공급식 참여 자치구 확대
 - 중소가족농 중심의 조달체계 구축 및 안전성 검사기관 전담화



4.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 ① 경제·민생 대전환을 위한 도시재생 본격화
- ② 지역별 특화발전과 균형성장 기반 강화
- ③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거점 조성
- ④ 공정한 출발선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1 경제·민생 대전환을 위한 도시재생 본격화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형 도시재생 구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 특별법 제정('13년) 이전부터 뉴타운 재개발사업 대안으로 도시재생 추진
- 총 189개 지역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본격 진행 중
 - 법정 도시재생사업(47), 주거환경관리사업(84), 우리동네살리기(5) 서울형 사업(15), 도시활력증진사업(11), 새뜰마을사업(2), 골목길(25)
-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성과 창출 가시화

■ 정부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 도시재생 확대

- 정부 '도시재생 뉴딜' 참여 지속 확대 : 7곳(18년) → 10곳(19년) → 25곳(20년)
 - '18년, 부동산 불안 등 악조건에서도 주거지형 7개소 선정, 국비 600억 확보
 - '19년, 중심지형(1곳), 경제기반형(1곳), 국가시범사업(2곳) 선정(용산 혁신지구, 영진시장 인정사업) 등 총 10개소 선정에 국비 1.150억 확보
 - '20년, 25곳 뉴딜 선정, 국비2,500억원 목표
- 지속적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성장거점지 발굴
 - 주거지형 도시재생사업 : '19년 희망지 대상 5개소 내외 선정('20.하반기)

서울형 도시재생 시민주도 자생력 확보

- 서울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 업체 선정(20개, 연 2회) 및 수익성 강화된 비즈니스모델 집중 개발
 - 예비 도시재생기업 주체 발굴 및 인큐베이팅 지원
- 앵커시설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자생력 강화
 - 시설 운영·관리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개발('20.9월)
 - 지역 주민이 시설 제안~운영 단계까지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 모델 확대

도심활력을 위한 공간 혁신 재생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본격 착수

- 기존 보행로 공간 활용 및 개선
 - 여의도~노들역~동작역 5.6km 보행 공간 개선
- 시민여가시설 조성 : 연결거점 9개소
 - 국제설계공모 완료('19.12)
 - '20년 6월 설계완료, '20년 7월 착공
- 한강 예술·상상 놀이터 조성
 - 건축·조경·미술이 복합된 프로젝트
 - '20년 기획, '21년 착공 및 준공



〈한강보행네트워크〉



〈한강 예술·상상놀이터, 뉴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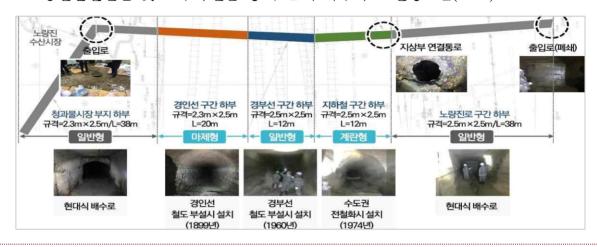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심 보행축 개선

- ① 광화문역 지하연결 보행 네트워크 조성
 - 종각역까지 연결되는 지하공간 재생으로 보행편의와 상권 활성화('20.12월 착공)
 - 지하벽면을 활용한 다목적 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문화복지 증진
- ② 세운상가 연결 보행 네트워크 조성
 - 종묘~남산을 잇는 보행길 완성으로 도심 남북축 활력 증진('20.11월 준공)
- ③ 서울로 7017 연결 보행 네트워크 조성
 - 서울로에서 남산으로 연결되는 고품격 숲길 조성으로 보행의 질 상승('20.12월 착공)
 - 서울로~舊서울역사 연결하여 도심 대규모 녹지 쉼터 조성('20.12월 준공)
- ④ 노량진~노들섬을 잇는 공중 보행길(백년다리) 조성
 - '한강인도교'의 역사성 복원 및 노량진 일대 지역재생 활성화('21.6월 준공)



지하공간 혁신사업 추진

- 노후역사 공간 개선 문화예술철도 네트워크 구축 및 거점화
 - 1호선 5개역(서울역, 종각역, 종로3가역, 제기역, 청량리역) 및 영등포시장역 대상
- 노량진 하수박스 역사문화공간 조성 추진
 -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복원을 통해 근대 하수박스 원형보존('20.3)



고가하부 혁신사업

- 옥수(다락多樂)고가 개관 외 '20년 5개소 개관 및 3개소 신규 추진
- 주민 필요시설 제공.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서울형 생활 SOC 모델 정립
- 사업 확대·지속 추진을 통해 조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옥수 고가 ('18.5.개관)〉

(이문 고가 ('20년2월 개관))

(종암 고가 ('20년8월 개관))



(한남1 고가 ('20년8월 개관)》

(금천 고가 ('20년11월 개관))

(중랑천 고가 ('20년11월 개관))

서울의 대표명소 재생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 폭넓은 경청과 끊임없는 토론으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 온오프라인 망라한 시민소통 실시 : 총61회, 12,115명 참여('19.9.~현재)
- 시민소통 결과 반영, 전면 보행화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별 사업 추진
 - (추진방식) 시민불편 최소화, 교통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추진
 - (조성방향) 집회시위, 대규모 행사 보다는 일상이 있는 공원 같은 광장

지난 100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효창 독립100년 공원 조성

- 공원과 운동장이 하나가 되는 일상적 추모공간으로 조성
 - -[일상적 성소] 담장, 도로 등 단절요소 제거, 전면성 회복
 - -[다층적 활용] 길→건물→공원 유기적 연결, 운동장 복합화
 - -[확장공원] 경계부 개선, 지역과 소통하는 공원 조성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예시>

-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추진
 - 대토론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추진
 - 시민참여프로그램(네이밍공모, 역사·문화전시 등)을 통한 홍보 및 시민관심 환기
 -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 '20년 현상설계공모·투자심사, '21년 착공, '24년 준공(예정)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

- 서울숲과 연계 시너지효과 가능한 지역대표명소 건립 추진
 - 문화예술 + 지식(도서관) + 복합문화 콘텐츠 도입
-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철거)를 통한 서울숲의 완성
 - '22년 6월까지 레미콘공장 이전, 온전한 서울숲 완성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등 사전절차 이행 ('20년~)



〈과학문화미래관〉

- 단절된 지역 연계를 위한 서울숲∼응봉역 보행교 조성
 - 디자인·전망·콘텐츠 특화 통해 지역의 新명소화 추진
 - 보행+자전거 전용으로 보행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 ▶ 기본계획 및 공모관리 용역 착수('19.9.), '24년 준공 목표



〈서울숲 보행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거점별 재생

■ 특화산업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장안평 일대 도심형 자동차 산업 거점 육성
 - 매매센터, 부품상가 등 지역 핵심 거점시설 현대화 추진
 -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3월)
- 독산,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육가공 판매 거점 육성
 - (독산) 위생 개선 및 시설 현대화('20.6월), 봉제·금형·우시장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경제·문화 중심지로 재생
 - (마장) 축산물시장 재래산업구조 및 공공위생환경 개선, 식문화 콘텐츠 제작 ('20.4월) 등 지역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성장기반 마련
- 서울역 일대 봉제·패션 거점 육성
 - 지역대표 패션브랜드(Agoing) 상품 본격 출시, 고수익 창출 지원
 - 봉제 관련 교육, 취업 연계 등으로 지역산업 부흥

공정한 출발 지원,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 의료·바이오 R&D 산업생태계 구축, 홍릉 일대 재생
 - 바이오산업 창업 및 산·학·연·병 기술융합을 위한 전 주기 앵커시설 조성
 - 경희대 근처 주거·창업 복합형 '바이오 소호타운' 조성, R&D 산업생태계 구축
 - 관련 산업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 공간 마련(276세대)
- 융·복합산업 거점, 영등포 경인로 일대 재생
 - 영등포역 역사 활용 시제품 제작 공간, 사회적기업 입주 공간 마련
 - 기계금속 장인+문래예술인 콜라보 제품 판로 개척
 - 저이용부지 활용, 공유·임대 공간 조성, 직주근접 임대주택 공급(237세대)
- 디지털 메이커시티, 용산 Y-Valley 재생
 - 4차 혁신산업 기반 대규모 창업문화복합허브 조성('24년 완공)
 - 청년 창업 플랫폼, Y밸리(용산전자상상가) 운영 다양화
 - 창업 교육, 멘토링, 축제 및 공모전 개최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미래형 도심산업 혁신, 세운상가군 재생
 - 창의제조업 기반 시제품 개발지원 사업 '세운메이드 프로젝트' 활성화
 - 창작인쇄산업 활성화 지원 플랫폼, '지붕 없는 인쇄소' 운영화 ('20.3월)
 - 창작인쇄산업 청년 기업·크리에이터 15개 유치 ('20.7월)

생활밀착형 주거재생

지역맞춤형 골목길 재생 확대

- 골목길 新유형 포함 사업대상 확대 추진(63개소)
 - (기존대상) 정주형 골목길과 동네상권
 - (확대대상) 역사문화적 골목길 + 새롭게 주목받는 핫플레이스 골목길



〈골목길 재생〉

실행력 중심으로 사업추진 체계 개편

- 계획과 실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도입
- 소규모 건축 활성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서울로 7017 연결 골목길 재생사업 본격 추진

- 보행길 정비, 거점시설 확충, 지역공동체 재생 등 시범사업(13개소)
- '골목길스튜디오' 중심으로 골목건축가와 주민이 함께 추진

▍체감도 높은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 집수리 지원 대상 및 구역 확대
 - 집수리 비용 보조·융자 : 718호('19년) → 800호('20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확대 : 98개('19년) → 118개('20년)
 - 집수리 봉사단 운영으로 취약계층 집수리 : 15호('19년) → 30호('20년)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본격 확산

- 빈집 매입방식 개선으로 사업대상 확대(230호) 및 활용
 - 빈집 단독정비 및 연접지 합동정비로 임대주택 800호 공급
 - (시범) 청년 거점공간 운영으로 주거 및 일자리 제공
 - 빈집을 지역 맞춤형 생활SOC로 공급하여 지역 자산화('22년까지 100개소)

■ 주민 공동체가 살아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 10분 동네 단위 지역밀착형 주민생활편의시설 확충 추진
 - 기존 앵커시설 설치 위주에서 주민 체감형 편의시설 확충으로 전환, ('22년까지 3,603억원 투입)
 - '19년 해제지역 등 취약지역 대상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13개소) : ~ '23년 조성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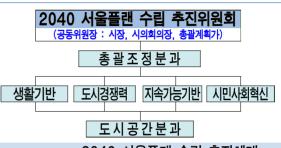
지역별 특화발전과 균형성장 기반 강화

미래 공간 비전,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이 제시, 시민투표로 2040년 서울의 미래상 결정 ('19.10)

2040 서울의 미래상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지속가능한 쾌적도시, 서울"

- 전문가-시의회-全 실·본부국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안) 마련('20.6)
- 온오프라인 채널, 시민·자치구 시의회 등 전면적 공감대 형성으로 2040 서울플랜 확정('20.12)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체계

법정절차인 공청회뿐만 아니라, 시민계획단 워크샵, 시민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 자치구 순회간담회, 시의회설명회, 시민공개토론회 등 전방위 의견 수렴

권역별 중심지 육성전략 마련 및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 확대

● 지역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추진

-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심지 육성, 생활SOC 확충방안 마련

-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고 자치구 의지가 있는20개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추진 ('20년)
- 민선7기내(62개소) 연차적 수립 완료
 ('18년 5개소 → '19년 15개소 → '20년 20개소 → '21년 22개소)



- 광역중심(청량라왕십리) 및 지역중심(동북권, 서남권) 육성·실행계획 수립
 - 광역·지역중심별 지역에 맞는 특화·육성전략 제시로 자생적 지역활성화 기반 마련
 - 고용기반 및 중심기능이 취약한 중심지 우선수립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강남북 지역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안정적 추진

- '서울시 균형발전계획' 수립(6월) 및 핵심과제 연계 주요사업 발굴·추진
 - 균형발전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개별사업 선정 및 연차별 로드맵 작성 ※ 균형발전 5대 분야 : 건강·생활편의시설, 주거환경, 산업경제, 기반시설, 교육
 -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위한 주민공청회·전문가 자문 실시('19.11~'20.2)
- 서울지역 균형발전 혁신사례 공유·확산 위한 균형발전박람회 개최(6월)
 - 서울시·자치구의 균형발전 성과 홍보, 토론회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낙후지역 우선 확충으로 균형발전 기틀 마련
 - 생활SOC 사업 연계 추진으로 지역 맞춤형 시민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 특화 및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심권)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글로벌 중심지 조성
 - 부암동일대 성곽마을 특성화, 황학동 일대 상업지역 선제적 관리
- (동북권) 자족기능이 갖추어진 살고 싶은 도시 구현
 - ─ 우이~신설 경전철 역세권 주변 육성, 면목동 일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 (서북권)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창조문화산업 선도
 - DMC역 일대 상업·문화공간 마련, 연신내·불광역 일대 지역중심 기능강화
- (서남권) 신성장을 선도하고 삶의 질 업그레이드
 - 온수역 일대 신산업·문화 거점 육성, 대한전선 부지 종합의료시설 건립 추진
- (동남권) 글로벌 업무・상업기능 강화
 - 양재 R&D 혁신거점 육성, 한류관광의 중심지 압구정로의 체계적 관리

시외곽의 낙후지역을 서울의 관문도시로 조성

-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18.9.~'19.12.)
 - 사람·물류 이동의 핵심 역할에도 저이용·방치된 서울관문의 전략활용·관리계획 수립



〈서울 관문도시〉

- 市 경계 주요 진입로 중심으로 대상지 여건 검토하여18개 관문도시 선정
 - ▶ 우선추진(4개소), 기 진행계획연계(2개소), 여건변화시 추진(3개소), 계획적 관리(9개소)
- 선정된 18개 관문도시의 단계별 사업화 추진('19년~)
 - 우선 추진 : '19년부터 사당·석수·공항·온수 4개 관문도시('23년 완료목표)
 - 향후 추진 : 가용지 현황, 사업화 검토 및 지역별 여건 변화시 단계적 추진

■ 강북 노후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시행

-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및 확대사업 추진
 - ('19~'20) 역세권 활성화사업(신규 사업모델) 도입, 시범사업(5개소) 대상지 선정, 사업계획(안) 구상 등 사업 추진
 - ('20~'21)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계획(안) 구상 등 사업 추진
-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보완 및 조례개정 검토 등
 - 확보되는 공공기여시설의 운영기준 및 관리체계, 입주조건 등 마련

3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거점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 기본설계(토목 '19.7월, 건축·시스템 '20.1월) 및 발주준비 완료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 후 '20.6월 공사발주 목표

●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 착수('20.1)
- MICE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완료('20년 상반기)후 후속 행정절차 이행, '20년 하반기 협상대상자 지정(예정)

지구일대 친환경·보행중심 인프라 조성

- 탄천 및 한강변 수변·여가·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 명소화 추진
-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19.11), 설계착수('20.1), '24년까지 단계별 조성 완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주경기장 리모델링〉



〈탄천·한강변 수변공간 조성〉

● 현대차 GBC 개발 지원

- 건축허가 관련 사전절차(수도권심의 등) 완료('19.1)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19.6), 건축허가('19.11) 완료, '20.4월 착공(예정)

■ 동북권의 일자리 · 문화중심,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서울아레나 등 문화예술거점 조성

-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20.9), 공사착공('20.12)
- 사전 붐업 조성을 위한 음악창작-음악산업 지원공간 2개소 개관 ('20.7)

일자리 창출 핵심 선도사업 추진

- 청년창업 및 50[†]세대를 위한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준공 개관('20.10)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0.7) ※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공사 지속 추진('19.11~'23.5)



〈씨드큐브 창동〉

● 창동·상계지역 통합 연결체계 구축

- 창동·상계 구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 ('20.7월 착공)
-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 설계 완료('20.9), 공사 착공('20.11)



〈동서간 연결교량>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실무 TF 구성 운영('20.2),기본구상안 마련 용역 시행('20.3~'20.11)

마곡 융복합 첨단 R&D 혁신거점 구축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 「연구공간 공유제」및「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운영
- 강소기업 입주기회 확대「민간 R&D센터」건립 ('22년 준공 목표)
- R&D 융합생태계 지원시설 「서울 M+센터」 건립 ('21.5월 준공)
- 산학연 융합 클러스터 「M융합캠퍼스」 조성 ('20년 사전절차 이행)



〈민간R&D 센터〉

●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 LG아트센터('21.12), LG보육시설('20.2), 코오롱스페이스K 준공('20.5)
-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 조성 사업자 공모('20.1)
- R&D기업 지원 위한 MICE 복합단지 조성('24년 준공 목표)



 $\langle MICE$ 복합단지 \rangle

● 마곡 스마트시티 시범(실증)단지 조성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형 스마트기술 기반 추가 구축('20년)
 - ▶ 스마트CCTV, 스마트서울안전망(112, 119연계) 등 스마트도시서비스 연계
-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추진 ('20년 10개 과제 선정)
- 마곡광장 內 스마트팜 운영 관리(농촌진흥청 협업 추진)

수색 · DMC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본격 추진

- DMC가능 지원 확장(업무상업시설 확보)을 통한 서북권 광역중심 조성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민간 가이드라인 마련 20 하반기 완료 목표)
- 철도시설(차량기지) 이전시업 예비타당성조사(KDI·코레일 주관)('20년 완료)



〈수색역 일대 개발〉

● DMC역 복합개발

- 서울시·코레일·민간 효율적인 시전협상 추진(20년 하반기 완료 목표)
- 이용자 중심의 복합역사 조성 및 공공기여 계획 수립



(DMC역 복합개발)

-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경의선 숲길 연장(향동천~홍제천) 및 휴게편의시설 설치 등
 - 마포, 서대문, 은평, 고양 생활권을 아우르는 광역 보행 네트워크 구축(안) 마련

궁정한 출발선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신혼부부 청년의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확대

- '신혼집은 서울시家!'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신혼부부 대상 연간 25.000호 주거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확대('20.1)
 - −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 '서울주거포털' 구축·운영 ('19.12)



-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강화
 -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통한 공급 확대 ('19.11)
 - 청년 독립을 위한 청년월세(월 20만원) 신규 지원 ('20년 5천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제도개선 ('20. 2)



〈충정로역 역세권청년주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추가 8만호 주택공급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지속 공급
 - 공공임대주택(6만호 → 12만호). 공공지원주택(2만호 → 12만호)
 - 공공임대 22.042호(95%), 공공지원 52.903(220%) 달성('19.12)
-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추가 8만호 공급
 -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
 - ▶기존 부지활용(2.5만호), 도심형 주택공급(3.5만호), 저층주거지 활성화(1.6만호), 정비사업 등 활용(0.4만호)
 - ※ 주택공급 패러다임 전환 : 양적 공급 ➡ 지역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 고려 공급



〈북부간선도로 복합화〉



〈경의선 숲길 끝 교통성 복합화〉





〈도심 공실 주거전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강화

-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를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 지도·점검 추진
 - 불법 방쪼개기,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불법구조 변경 점검
 - 위법행위 엄단조치(시정명령→고발(확행)→이행강제금 부과→미납시 압류)
- 노후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원
 - 건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과단위), 인력, 예산(특별회계) 확립
 -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중소형 공사장 집중관리, 민관 협업체계 구축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화 및 효율화 기반 마련

-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설립・운영
 - 서울시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 신설·운영을 통해 아파트 문제해결 지원
 - 적발·처벌에서 지원·자문 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 전환
- 아파트 전자결재 'S-apt 플랫폼'구축·운영('20. 6월 시범운영, '21년 의무)
 - 아파트 관리업무 접수·생산문서 전자결재 및 시민·입주민에게 공개
 - '20년 이후 서울지역 의무관리 단지(약 2.500여개)로 확산 보급

정비사업의 전문화 · 선진화 추진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20.4~'21.4)
 - 클리업시스템, e-조합시스템을 통합·일원화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 결재, 분담금, 융자 등을 All-In-One, 투명한 조합운영 유도

e-조합 공개 기능 e-조합 결재 기능 분담금 추정

정비사업/공공지원

- ◆ 정보공개
- ◆ 알림마당/정보센터
- ◆ 조합안내, 사업현황
- ◆ 문서작성 및 접수
- ◆ 전자 결재
- ◆ 예산관리, 회계관리 ◆ 추정 사업비 및 개략적 분담금
 - ◆ 확정된 사업비 목록
- ♦ 융자금 신청/조회
- ◆ 정비사업아카데미
- ◆ 정비업체 정보
-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인권·주거권 보호
 - 사전협의체 운영 내실화로 협의에 의한 자진이주 유도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지속 추진



〈시전협의체 운영〉

_	68	-
---	----	---



5.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 서울

- 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평등 환경과 가치 구현
- ② 글로벌 사회혁신 도시로의 도약과 청년·인권 정책 강화
- ③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구현
- 4 지방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생
- 5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화
- 6 대시민 소통 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구현
- 7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
- ⑧ 시민에게 신뢰받고 만족할 수 있는 공정세정 구현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평등 환경과 가치 구현

일상과 일터에서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24시간 안심,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 시스템 강화
 - 스마트서울 CCTV인적센터(마포) 내 「안심이」 앱 총괄관제센터 설치 ('20.2.)
 - 안심이 앱 다국어(영. 일. 중국어) 지원 등 신규 기능 개발 추진



-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SS존(Safe Singles Zone)' 지원 확대
 - 여성1인가구 안심홈 4종세트 및 1인점포 무선비상벨 설치 : 327가구('19) → 500가구('20)
- 여성 안심 생활권 지속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여성안심택배 확대 : 231개소('19) → 261개소('20)
 - 안심귀가 스카우트 50명 증원(450→500명), 귀가지원 3만건 확대(35만건→38만건)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 및 좋은 일자리 지원

- 「성별 임금격차 개선」 본격 추진
 - 투자출연기관(23개 기관) : '19년 임금공시 이후 성별임금격차 개선 추진

1단계(1~2월) 격차 원인분석

2단계(3~4월) ↑ 자체 개선계획 평가 및 피드백 ↑ 개선계획 이행여부 점검

3단계(5월~)

- 市 민간위탁기과(20개 기과) : '20년부터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시작(4~10월)
- 민간부문까지「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
 - (시·산하기관) 관행적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분야 성차별 조사 시행
 - (민간부문)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3월)
- 여성창업의 허브 '스페이스 살림' 개관('20.9월)
 - ─ 여성창업공간, 성평등·돌봄공간 등 취·창업 플랫폼 조성
 - 주민설명회(3월), 투자유치대회 및 미리보기 행사 개최(6월)

젠더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여성 인권도시 조성

-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활동 확대 : 4,473건('19) → 6,000건('20)
 -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3명) : 350건 ('19) → 800건('20)
-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으로 사회인식 개선
 -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 600회 22,000명
 - 폭력예방 공익광고 제작. 버스·지하철·전광판·영화관 등 집중 홍보(5~11월)



2 글로벌 사회혁신 도시로의 도약과 청년·인권 정책 강화

■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

- 혁신+교육+연구가 결합된 서울혁신파크 2단계 기본 구상 추진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서울연구원을 사회혁신 클러스터로 구축하여 공존·협력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 세계도시, 혁신활동가 교류의 장으로서 「서울혁신주간」 추진(9.22.~26)
 - 미래혁신포럼, 공유도시 서밋, 혁신 현장방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공유도시 서울공동선언, 생태문명 전화도시 서울 공동선언 이행계획 등 발표
- 환경과 경제의 생태적 융합,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정책기반 마련
 - 시민참여와 기술기반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
 - 지역·부서·섹터의 경계를 넘어 정책수립·기획·집행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공동 생산하는 정책협업 실험실(가칭 : 서울솔루션즈) 운영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등 청년자치 구현

- 청년에 대한 실속 있는 지원으로 자립 기반 마련
 - 청년수당 지원강화 : 졸업 후 2년 경과, 만19~34세, 3만명 (※ '19년 지원 : 5천명)
 - 청년공간 확대: 12개소('19년)→18개소('20년), '22년까지 8개소 추가 조성·운영
- 청년들의 토론·숙의과정을 통해 청년 자율예산 편성
 -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1,000명) 모집
 - 청년시민회의 분과 구성 및 운영지원, 월1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상시적 의사 결정

■ 함께 누리고 참여하고 포용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구현

- 인권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실태파악을 위한「인권실태조사」실시(수시)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사회적 이슈, 필요성, 시급성 등 인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인권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선정(2~3월)
 - 청년 혐오표현 실태조사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청년 혐오표현 인식 및 현황조사(5월~) * '19년 실적 : 2건(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제작)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인권침해 감시 강화
 - 1개조 4명으로 구성하되, 폭력 등 긴장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인원 확대 운영
 - 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 경찰청 등과 협력관계 구축으로 법·제도 개선 추진 ※ 운영실적 : 228회('17. 4.3~'19.11.30)

▋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구현

시민이 결정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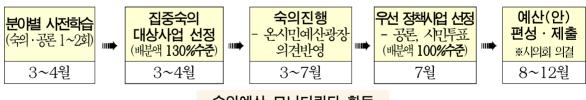
- 더 많은 시민의 폭 넓은 참여로 市 정책을 결정하는 「서울시민회의」 구성·운영
 - 성별·연령·지역(자치구)을 고려한 서울시민 3,000명 공개모집('20.3)
 - 주제별·규모별 다양한 공론장 운영으로 더 많은 시민의 폭넓은 참여('20.5~12)
- 시민참여 행사를 연계한 「민주주의 주간」 개최로 참여 효능감 제고
 - 정책박람회를 민주주의 주간으로 확대 개편하여 시민 결정력과 실행력 강화
 - 일자별 테마를 정해 다양한 공론과 정책 결정 추진(시청 및 서울광장 일대)

구 분	메인 테마	주요 프로그램	주 참여자
8. 29.(토)	예산결정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참여예산위원 등(약1,000명)
8. 30.(일)	시민회의	시민회의 총회	시민회의 참여자(약3,000명)
8. 31.(월)	주민자치	구정 연구단 학술대회 등	25개 자치구 중심 참여
9. 1.(화)	숙의공론	민주주의 서울 공론장 등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 「민주주의 서울」운영 활성화로 시민제안과 정책공론 기능강화
 - 시민과 더 많은 공론을 위해 공론장 개설 기준 조정(500명 공감→100명 공감)
 - 시장 답변 기준 조정(5,000명 참여→1,000명 참여)으로 시민제안의 효능감 제고
 -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공론장' 등 온·오프라인 공론장 확대

더 많은 시민, 더 깊은 예산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추진
 - 복지, 화경 등 13개 분야(5,300억원 내외) 대상으로 시민참여에 의한 숙의·공론화 실시
 - 숙의예산시민회, 온시민예산광장 등 구성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온오프라인 참여 보장



숙의예산 모니터링단 활동 시민공론장 운영

- 시민이 예산사업을 제안 · 심사 · 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 운영
 - 광역단위(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등) 400억원 내외, 지역단위(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300억원 내외 등 총 700억원 규모 운영
 - 제안사업 심사('20.4~7), 시민 전자투표 후 한마당 총회 최종 승인('20.8)
 - 일반시민, 시민참여예산위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예산학교 교육 운영(연간 70여회)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실현

-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및 협치시정 고도회를 위한 「서울사회협약」 체결 추진
 - '서울사회협약 민간협의회'를 중심으로 서울사회협약 민간안 마련('20.3)
 - ▶ 주요내용 : 참여·숙의를 촉진하는 제도혁신,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정책 공동생산 등
 - 서울사회협약 민간안의 핵심과제 이행부서 검토 및 합의('20.4~5)
 - 협약 체결 및 선포식 개최('20.6), 이행점검체계 구축 및 확산 추진('20.6~12)
- 자치구 협치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성장을 위한 지역협치 고도화 추진
 - 지역문제 발굴-정책제안-토론-예산편성-실행-평가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설계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 ▶ '21년 25개 전 자치구확대 예산편성 추진(총 250억원, 구당 평균 10억원)
 - 지역사회의 복잡·다양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전략사업 도입
 - ▶ '21년 지역사회전략사업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총 15억원, 3~5자치구)
- 시민 주도 사회변화 촉진을 위한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확대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으로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 정책·제도 연구
 - 권역 NPO지원센터(동북권, 동남권) 운영으로 지역기반 단체, 권역의제 지원
 - 권역 NPO지원센터 1개소 추가 설립을 위한 대상 권역 선정 등 절차 추진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

-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인 마을 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
 - 13개소 신규 조성(거점형 1, 마을공동체형 6, 모두의 공간형 6) 및 운영주체 발굴 추진
 - 마을활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감워크숍 운영(6개소) 및 사업비 지원(24개소)
 -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20.6~9) 결과 활용하여 공간 플랫폼 구축, 이용자 편의 제고
-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 ─ 마을과 자치가 융합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지원(24개 구)
 -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을 위한 「이웃만들기」, 골목활성화를 위한 「골목만들기」 등 자치구 여건과 주민 필요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 동단위 마을문제(현안) 해결 지원으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역 환원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80개동)
 -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으로 마을계획 등 실행력 향상(145개동)
 - 마을의 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로컬랩 추진(4개동)

지방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생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상생 종합계획」 추진

- 정책간 촘촘한 연계망을 통한 사람·정보·물자 교류 활성화
 - 지역 수요에 맞는 교류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사업 질적·양적 성장 도모
 - 지역별 자원·교류 정책 발굴, 市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기반 상생모델 개발
 - ※ 추진전략: 3대 분야, 37개 세부 사업

구 분	분 야	주 요 사 업
인적교류	서울-지방 상호 인적교류	청년 일자리 창출, 서울농장 조성, 문화예술 공연 교류 등
정보교류	혁신 기술·제도 공유	지자체 MOU 체결 활성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등
물자교류	자원의 유기적 연계	직거래 장터 활성화, 과잉 농산물 판로지원 등

- 지역 맞춤형 MOU 체결 및 체계적 관리로 상호발전 기틀 마련
 - 지역 안배를 고려한 기초지자체 중심 교류로 시민 체감도 제고
 - 지역 환경변화 및 수요에 따른 사업 개편을 위해 협약일몰제 도입(기본 2년 2년 7년 7년)
 - 협약체결 지자체별 관리카드 작성 및 민·관 협력평가를 통해 사업 내실화

상생교류 확대를 통해 공존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청년 일자리 연계, 귀농·귀촌 사업으로 인적 양극화 해소 및 지방 활력 도모
 - 지자체와 함께 청년 지역기업 취업 지원 추진 및 창직·창업 활동 연계(700여명)
 - 귀농정착 지원 플랫폼 '서울농장' 확대 추진(3개→7개), 귀농·귀촌 교육(500여명)
- 우리시 혁신 기술·제도를 지역과 공유하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 타 지자체에서 우리시 방문, 토론·현장탐방을 통해 지역의 변화 촉진
 - 지역공무원, 시민 등 대상 도시재생 등 12개 분야 180여개 혁신현장 소개(7,500명)
-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생상회 활성화 및 농·수산물 판로 지원
 - 주요 농산물에 대한 연중 지원 체계 구축 및 지하철역사 특판전 확대 운영(3개 → 5개)
 - 전문 유통기업(11번가, 롯데백화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아)과 협업 통한 상생상회 판로 확대

5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화

과감하고 파급력 있는 남북교류 협력 전개

- 서울-평양 관광루트 '평화의 길' 개척
 - 내·외국인 대상 '서울 (DMZ) 평양' 연계 관광코스 개발·운영 (점진적 대상 확대)
 - 육로, 항로, 해로 등 다양한 루트개발을 통해 서울-평양 간 활발한 교류협력 촉진
- 제3국을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으로 서울-평양 도시교류 다변화
 - 스포츠 기반의 서울-평양 도시교류 강화 및 사업 다변화(동북아국제친선탁구대회 등)
 - 남・북・러 역사유적 발굴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나선-녹둔도 이순신 유적)
- 진정성 있는 교류협력으로 북한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서울-평양 신뢰 제고
 - 다방면의 협력을 통한 북한 주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 증진 지원(방역, 식량 등)
 - '깨끗한 물 공급' 등 인도적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외 활동(INGO, 민간단체 등)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문화조성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문화조성 사업 다양화
 - 문화조성 사업확대 : 사회적 대화(4개 권역→12개 권역), 가족캠프(2백명→1천명) 등
 - 평화통일 경제 시민 아이디어 및 정책 공모, 6.15 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등
-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온라인 미디어 및 문화예술 콘텐츠 기반의 시민참여 평화통일 교육사업 전개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사업 발굴,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 등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 평화통일 교육 〉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 〉

국제협력을 통한 'World Peace Leader City, Seoul' 비전 확산

- 「2020 서울평화프로세스」의 성공적 실행을 통해 우리시 '평화의지' 공유·확산
 -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서울평화포럼 개최 등을 통해 '평화도시 서울' 비전 공유
 - 서울평화주간(10.12~17)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평화인식 제고 및 참여 극대화
 - ▶ Live Aid, 노벨수상자 활동 전시회, 평화콘서트, DMZ 등 평화 상징공간에서 행사 진행

에 대시민 소통 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구현

시민 주도의 시정참여 및 소통 활성화

- 시정정보 제공 및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시민과 공감대 확산
 - 신문・잡지・방송、市・자치구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생활 정보 적기 제공
 - ─ 정책소통평가단・명예시장 등 운영을 통해 현장 소통 및 시정 참여 활성화
-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민이 원하고 필요한 시정정보 접근성 제고
 - 온라인 매체 활용, 재난안전 및 시민생활에 유용한 정보 신속 제공 등 소통 강화
 - 콘텐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영상·방송물 제작·확산으로 시민 공감도 제고

서울브랜드(I·SEOUL·U) 마케팅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서울경제 활성화 및 도시매력 확산을 위한 해외홍보 마케팅 실시
 - 전략적 해외 현지 프로모션(연 4회)을 통한 서울 이미지 및 품격 제고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도쿄올림픽, WeGO(필리핀 마카티)총회 등과 연계 도시 마케팅
 - 인플루언서, 해외유력방송 및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확산
- 시 대표 외국어 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및 도시매력 확산
 - 市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6개) 및 SNS(10개)를 활용한 주요정책 해외홍보 확산
 - 해외언론인 등 초청 연계 도시매력 홍보, 외국어 방송 콘텐츠 제작·확산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제공

-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응대 역량 강화
 - 민원서비스 친절교육(10회 4,140명) 및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4회 120명)
 - 민원응대(전화/방문) 서비스 품질관리 및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추진
 - ▶ 민원응대서비스 점검〈전화 상·하반기 3회실시, 방문 기관별(42개소) 3회〉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찾아가는 서울시청' 활성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제공
 - ▶ 시민참여 높은 현장(민간박람회, 자치구축제 등) 집중 방문(주 3회)
 - '서울생활도우미' 운영을 통한 시민과 민원부서간의 민원해결 등 만족도 제고

7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

청렴정책 지속 추진 및 시민불편 개선 기획감사로 시민만족도 제고

- 청렴평가 상위권 도약을 위한 청렴정책 지속 추진
 - 2019년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 한 단계 상승 성과 거둠(4→3등급)
 - 금년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맞춤형 청렴정책 지속 추진
 - 청렴UP콘서트, 1실국본부 1실천과제, 청렴알림문자, 청렴뮤직송 대내외 전파 실시 등
- 적극행정 활성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사전컨설팅제도 도입, 적극행정책임관 지정 등으로 적극행정 지원체계 구축
 - 적극행정 실행 중점과제 이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등 인센티브 지원
- 시민불편·안전취약 분야 선택과 집중, 효율적 감사로 시민체감도 제고
 - 관행적 비리 적발조치에서 시민 불편사항에 집중, 대안제시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사로 전환
 - 공공시설 이용불편, 미세먼지, 악취 등 생활환경, 친환경교통수단 등 정책 감사 추진

특별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민생침해범죄 척결

-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수사력 강화
 - 부동산+청년+돌봄 등 시정 역점사업에 수사력 집중 지원
 - 一 수사직무별 市 유관부서(15개 실국본부·39개 부서) 협업강화
 - 수사결과의 환류기능 강화로 제도개선 및 범죄피해 예방 강화
- 인권에 기반한 민생안정을 위한 수사 활성화
 - 인권보호 신규 제도 신설·운영 : 인권정책자문단, 영장신청사전심사제
 - 수사관 인권의식 함양 : 인권수사매뉴얼 제작, 수사관 인권교육
 - 인권친화 수사환경 조성 : 영상녹화 고지, 메모권 보장 등
- 정보분석과 우선순위에 의한 수사력의 선택과 집중
 - 정보분석 및 첨단기술 활용, 수사의 가치와 우선순위 결정
 - 온라인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알고리즘 개발 활용
 -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시기별·타깃별 맞춤형 홍보 추진(민생침해사전예보)

▍시민에게 신뢰받고 만족할 수 있는 공정세정 구현

부동산 과세의 공정성 제고 및 시세입 안정적 확보

-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설치·운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20.2월~)
 -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 업무 지원
 -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20)에 적극 참여 및 법령·제도개선 건의
 - 공동주택 실거래가, 실거래량 등 공시가격 관련 각종 빅데이터 분석
- 적극적 세입 징수활동으로 '20년 市 세입목표 달성(19조 5,524억원)
 - 시·구 합동 징수활동 및 자치구별 목표관리 강화로 시세 징수율 제고
 -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중과 적정성 일제조사·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
- 강력한 체납징수기법 활용으로 체납징수 증대
 - 체납자 보유 재산의 신속한 조사·압류 및 공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실시
 - 호화생활자, 사회저명인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특별관리

지방세 영세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

-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완화('20.4월)
 - 법령상의 급여압류 금지 금액에서 서울형 생활임금 금액으로 급여압류를 완화하여 생계형 임금생활자의 실생활 영위 보장

(현행)법령상 급여압류

(개선)서울형 생활임금에 따른 급여압류

■ <u>월 185만원</u> 미만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2020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예정)



- <u>월 220만원</u> 미만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 서울형 생활임금 월급기준 : 2,199,307원
- 생계형 체납자 발굴 및 장기 압류채권 해제 추진
 - 납부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 적극 발굴 및 복지·일자리 연계 지원
 - 소액금융계좌 등 장기 압류채권으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이 곤란한 경우 실효성 조사를 거쳐 계좌 압류 해제 및 체납세금 분납 등 경제적 회생 지원